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2009 12.02
No.39(통권 140호)



한·아프리카 포럼
"한국, G20 국가와 아프리카 가교 될 것"

美 LPGA 데뷔 첫해 3관왕 '골프 지존' 신지애

지상 중계 **'대통령과 대화'**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더 큰 대한민국 2010 G20 코리아
세계로, 미래로!
FTA,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풍요로운 우리의 내일을 위해"
KOREA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내복 입기 · 겹쳐 입기로
건강한 겨울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내복이 필요한 계절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어릴 적 기억 속의 빨간 내복은 유난히 춥고 생활 형편도 어려웠던 시절의 겨울을 든든히 나게 해주었던 고마운 존재이자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난방이 늘어나면서 내복은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요즘엔 한겨울에도 집에서 반팔 옷을 입고 지낼 정도로 지나치게 난방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에너지 기후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왜곡된 난방문화를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녹색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도 지금부터 잘못된 인식과 습관을 개선해야 글로벌 녹색강국이 가능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이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실천할 수 있어 녹색혁명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난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내복 입기는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쉽고 효과도 큰 방법이다. 조끼나 카디건 등 '겹쳐 입기'도 한 방법이다.

겨울이 춥고 긴 우리나라는 난방에 막대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 2007년도 가정 및 건물 부문의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10퍼센트에 이른다. 국민 모두가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섭씨 3도만 낮춘다면 난방 에너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국가적으로 연간 1조8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내복은 건강에도 이롭다. 무조건 난방에 의존하다 보면 실내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친 난방을 하지 않아도 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숙면도 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더욱 좋다.

게다가 내복은 우리 몸이 발산하는 열을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갑작스런 체온의 변화를 막고 추위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신종플루와 같은 질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더없이 요긴한 '참살이 필수품'이라 하겠다.

요즘 내복은 패션과 기능 면에서도 진화했다.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져 얇으면서도 보온성은 뛰어나 겉옷의 맵시를 망치지 않는다. 발열 내복,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항균 내복, 겉옷처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복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같은 내복의 변신으로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시 내복 바람이 불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내복 판매량이 적게는 1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까지 늘었다고 한다. 건강과 경제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겨울에는 기습 한파가 잦을 것이라고 한다. 내복 한 벌이면 겨울철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과 가정경제도 지킬 수 있다. 녹색시대 일석삼조의 필수품, 옷장 속 내복을 꺼내 입고 온(溫)맵시를 뽐내보자. G



기획특집

녹색패션 '溫맵시' 뽐내보아요

겨울 내복은 보약 한 제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으면 든든하거든요.
실제로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섭씨 3도나 올라간대요.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 난방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 지구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죠.
이번 겨울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복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요?
올 한 해도 고마웠다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시라고요.





08



48

Weekly 공감

발행일 2009.12.0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38호(11월 25일자) '코치로 인생 2막 여는 우생순 골키퍼 오영란' 기사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과 격려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생순' 영화를 보면서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들의 애환에 눈물이 났었는데 영화 속 주인공의 기사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이엄마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까지 낳은 몸으로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코치로 핸드볼계를 이끌어간다니 온몸으로 공을 맞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핸드볼을 더욱 응원해야겠습니다. 파이팅!!"_ 홍양희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어서 올림픽에서만 반짝 빛을 보고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슬픔을 맛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우리의 나이 많은 여자 핸드볼 대표선수들은 이런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력으로 최선을 다해 준우승과 3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업적을 이뤘다. 선수들이 진정으로 선수생활에 전념하려면 소속팀이 있어야 하고 은퇴 후 지도자의 자리가 마련돼야 아무런 고민 없이 최선을 다해 뛸 수 있으리라 믿는다."_ 우향화

●● 〈Weekly 공감〉 38호 기획특집 '관광부국 대한민국'과 관련해 올라온 댓글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적도 주요 관광 유인책이지만 인프라 구성이 돼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세계 관광부국의 인프라 조성 사례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되짚어 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중요한 관광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관광산업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다뤄주었으면 한다."_ 유은경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고 접근성, 연계성, 우리만의 특성이나 특수한 문화재나 유물 등을 최대한 홍보해 외국인을 유인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면 관련 업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용이 증대되리라 봅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며 유관업체의 실업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_ 우정렬

●● 〈Weekly 공감〉 38호 '신종플루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받아' 기사에 대해 독자께서 공감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학부모다 보니 신종플루에 관한 새 소식을 가장 관심 있게 읽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은 항바이러스제 부족 사태가 없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고요, 이번 호에서는 궁금했던 취약계층 예방접종 소식을 다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부모로서 애타는 심정을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_ 정예본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알립니다

1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기자단' 모집

정부 정책의 모든 것을 알리는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에서는 제3기 정책기자단(reporter.korea.kr)을 모집한다. 정책기자단은 정책이 꽃피는 현장을 찾아 그 효과를 살피고, 칭찬하거나 비판하고, 의견을 내놓는 국민기자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이 되면 청와대 회의 취재, 국가정보원 탐방, 해상 치안현장 확인 등 일반인들은 좀처럼 가보기 힘든 정책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관련기사 61p) 다음, 네이버 등 5대 포털에 자신의 이름을 단 기사를 내보낼 수 있다.

응모 자격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응모 마감 12월 6일까지
모집 분야 정책기자단 2백40명(정책VJ 포함)
응모 방법 모집 분야에 맞게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제출
제출 방법 korea.kr 속 모집 배너 참조
문　　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02-3704-9844 shlee@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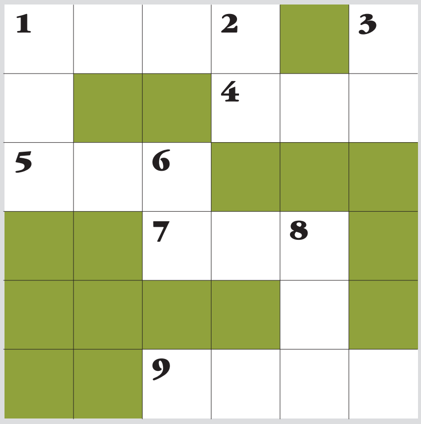


2 길 찾기 관련 에피소드 공모

행정안전부는 길을 못 찾아 고생했던 '길치'들의 재미난 에피소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편리하게 길을 찾은 재미있는 사연들을 모집한다.

주 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길을 찾다 재미있었거나 편리했던 경험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편리했거나 곤란을 극복했던 사례
지번 주소로 길을 찾다 헤매거나 약속 시간에 늦은 사례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 실제 경험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하며 가상임이 밝혀질 경우 포상 회수
대 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 법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e메일 : webmaster@juso.go.kr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분 량 A4 2장 내외(아래한글 10포인트), 2백자 원고지 15장 내외
일 정 12월 9일 마감, 12월 24일 수상자 개별 통보,
12월 29일 수상식 예정
시 상 대상(1명) 1백만원, 최우수상(16명 이내) 50만원,
우수상(80명 이내) 20만원, 장려상(3백20명 이내) 10만원
문 의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내 공모 관련 질의 게시판

공감 ♥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7호(11월 1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일박이일 4 일자리 5 회복 7 지원 10 고취
세로 2 박람회 3 일일 6 복지 8 원고 10 취업

〈Weekly 공감〉 3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혁목(인천 서구 검암동)
김은솔(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박양정(경남 남해군 이동면)
이주영(전남 영암군 미암면)
최성열(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 로

1. 봄 여름 가을 겨울.
4.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 "내복을 입으면 체온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OOO이 강해져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도 되죠."
5.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OOO 폭격기'
7.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에 접한 나라. 수도는 다카르. "제2차 한 · 아프리카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한 · OOO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OOO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9. 적도가 중앙부에 걸쳐 있어 열대와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는 대륙. 기아, 초원, 야생동물, 육상….

세 로

1. 조선시대의 판소리계 소설. 이도령, 향단이, 월매, 방자….
2. 겨울잠. 곰, 뱀, 고슴도치, 박쥐, 너구리….
3. 1년의 달, 날, 요일, 절기, 기념일 등을 적어 놓은 것. "문득 OO을 보았더니 12월도 코앞에 와 있었다."
6. 다음에 오는 세상, 다음 세대의 사람들. "자연환경은 우리 OO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인류의 재산이다."
8.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그 일을 매끄럽게 OOO할 사람이 필요하다."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을 1년째 구독하고 있다며 내년 2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꼭 지면을 통해 참여해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김민영(22) 씨를 만났다. "지금 눈앞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당찬 여대생인 김 씨는 〈Weekly 공감〉에 대해 "일반 신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정부 정책과 활동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잡지"라고 평했다.

● 〈Weekly 공감〉을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자단 2기로 활동하면서부터 받아봤습니다. 무엇보다 무료인데다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지라는 점에서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Weekly 공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저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37호 기획특집인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다'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과 취업한 사람들의 성공기 등의 기사는 취업을 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불만사항은 없나요.

정부 잡지라고 하더라도 너무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과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문제도 많고 그만큼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 후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정원호 서울 강서구 공항동

1. 우리나라가 11월 25일 원조 선진국이 된다는 기사를 잘 봤다. 40년 만에 일궈낸, 그것도 세계에서 첫 사례라니 정말 뜻깊고 자랑스럽다. 개발도상국 시절 국제사회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원조 선진국이 될 수 있었듯이 다른 개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제2의 원조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모범 원조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고 특수관광(의료관광 등)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생태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는 비무장지대(DMZ)는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관광 분야인 것 같다. 우리나라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로 세계에 인식될 날이 올 것 같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기사였다.
3.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

우도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 '정부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를 읽고 과거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웠던 공무원들의 답변 자세가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 있었다.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민원 불만 제로시대가 도래하리라 믿는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복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자 환경을 가진 DMZ의 관광자원화, 폐선철로와 간이역의 관광명소화, 문화생태 탐방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생태녹색관광지가 되리라 본다. 특히 DMZ는 철책선 안쪽으로 숱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에 독특하고 특수한 관광자원이 되고 오래 인상에 남으리라 믿는다.
3.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대학 가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진로나 구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여러 각도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녹색패션 '온(溫)맵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전남 해남 고천암호에서.

가창오리들의 내한공연

내한공연이다.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온 군무(群舞) 공연이다.
초대하지도 않았고 마중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충남 서산 천수만이 가창오리 떼 여행의 종착지는 아니다. 10여 일 뒤 다시 비행한다.
천수만에 시베리아 북풍이 몰아치면 남도 땅 해남 고천암호(湖)에
겨울철새 '철든' 여행의 지친 날개를 접는다.

겨울날 짧은 해가 사그라진다. 무대가 어두워지면 공연이 시작된다.
어부가 투망을 던진 듯 일사불란한 화합의 떼춤이다.
쉬익~ 쉬익~ 아기 참새도 엄마 따라 춤을 춘다. 손님맞이 축포, 셔터가 연신 터진다.
겨우내 '따스하게' 잘 지내거라.
서민은 따뜻하게, 중산층은 두텁게, 가창오리는 따스하게.

글과 사진 · 이훈

"정치적으로 내가 편하려고 내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세종시 원안 수정해야"



동아DB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강 복원 공사와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

"매년 강 개선 사업에 드는 예산에 조금 보태면 완공된 이후 돈이 훨씬 덜 들어 장기적으로는 예산에 굉장히 도움 될 것"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7일 밤 10시부터 MBC TV를 통해 방송된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세종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이 전문가 패널과 시민대표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생,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세세한 답변을 내놓았다.

"원안으로 자족도시 안돼… 교육 · 과학 중심도시 만들 것"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 행정부처(9부 2처 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시작돼 예정 시간(1백 분)을 훨씬 넘겨 진행된 생방송에서 세종시 문제에만 40분 가까이 할애해 세종시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충청도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전쟁 중인데 9개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자들이 대통령 만나러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수도 분할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내려가고 대통령 혼자 있으면 서울에 (장관들이) 1년에 6개월은 와 있어야 한다"며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세종시로 내려가는) 1만여 공무원의 (서울에서의) 출퇴근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충청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로 선거를 할 때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얘기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서 "안(案)을 바꿈으로써 혼란이 오고 사회갈등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도민이 혼란스럽고 속이 상할 것"이라고 속내를 밝힌 이 대통령은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에 사심이나 정치적 저의

국가가 불편한 일 할 수 없습니다”

가 없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 먹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 및 여당 일각의 수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도 이해하지만 역사에 서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로부터 직접 질문을 듣고 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유 군수를 보니 초췌해서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주민들도 삶에서 떠나와 생계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처 9개가 옮겨가도 할 일이 거의 없다.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이 있어야 돈벌이도 생긴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원안으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뽑을 때 중앙에서 전국에 걸쳐 뽑아 배치하니까 고용이 안 생긴다”며 “어떤 형태로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예산 복지에 쓰라는 건 포퓰리즘… 수질 개선이 실익”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강 복원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4대강에 설치될 보(洑)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강물이 맑고 그 많은 수량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다. 갈수기엔 걸어서 건너다녔다”면서 “잠실과 김포 쪽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었는데 물이 썩었느냐”며 “생태계가 복원되고 황복이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 보를 만들면 한 단계 더 높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4년에도 43조원 규모의 수해방지 계획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87조원 규모의 신국가방재방안을 세웠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예산낭비 주장의 맹점을 지적했다.

MBC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해결할 시급한 민생 현안 1위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였고 다음이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교육비 부담 해소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부의 당면과제는 서민이 어떻게 체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까다”라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한강 보를 설치할 때도 “나라 팔아먹는다”며 반대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업들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을 둘러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정작 중소기업들은 20만명을 못 구하고 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뽑는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도 눈을 한번 돌려보라. 벤처에 대해서도 남의 말만 듣지 말고 말 그대로 도전해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국군 포로 등 인권문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디어법 재개정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 패널, 시민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 시청 국민들의 반응

"욕 먹더라도 나라 위한 용단… 솔직한 사과에 진정성 보였어요"

많은 국민들이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이날 방송을 본 국민들은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해소했고 솔직한 대통령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꼭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토목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정보기술(IT) 같은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김용경(63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씨는 "특히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가 한강물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사람으로서 공감했다"며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본 소감을 밝혔다.

많은 국민들은 이날 방송의 가장 큰 주제였던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회사원 신병진(44 · 서울 도봉구 창동) 씨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불신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엿보였다"며 "욕을 먹더라도 나라 전체를 위해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말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다만 충북 연기군민들이 보상금이 적어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교사 이혜영(42 · 서울 동작구 동작동) 씨도 "막연하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기식 불도저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연합

11월 27일 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늘 대통령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보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일이 그렇듯 편견을 가지고 보면 꼬투리 잡기에 급급하기 쉽다.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효준(27·숭실대 일본학과 3학년) 씨는 "대통령이 세종시 예정지 주민들을 위해 고뇌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고뇌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사안을 떠나서 이날 방송이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솔직한 대화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도 풀렸어요"

주부 문명숙(38·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씨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할까 궁금했다. 실타래 얽힌 듯 난무한 여론들을 보고 있노라면 많이 답답했는데 막힌 길이 뚫리는 듯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좋았다"고 말했다.

주부 이용숙(44·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도 "대통령과 국민 간 대화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해소됐다"며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연기군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다. 복지기관 청소년 지도사인 백승훈(28·대구 남구 대명동) 씨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국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모습, 대화를 통한 소통의 시도 등이 자주 지속적으로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오늘은 미디어법 개정, 실업해소방안 등 좀 더 민감하고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미약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IT 컨설턴트 허선영(39·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씨는 "대통령께서 내복을 입고 청와대의 실내온도를 섭씨 3도 낮추는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한다는 말씀이 반가웠다"면서도 "대화 중 과거 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많이 강조해 일부 대목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주제별 국민과 대화 가졌으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유순옥(49·광주 동구 계림동) 씨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대(對)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고뇌와 솔직한 사과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돼 아쉬웠다"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청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고뇌와 사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대화를 통한 소통의 시도가 더 자주, 지속적으로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권 광운대 디지털영상학과 교수는 "경험을 바탕으로 평이한 용어로 쉽게 말씀을 잘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청년실업 문제는 자신감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일 동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잘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 자신이나 현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선진화된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이란 말씀에는 진정성이 엿보여 좋은 인상을 주었고 믿음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아주 진지하게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생 부분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수정 반대론자와 현지 주민을 끌어안으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처럼 한꺼번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수시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11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아프리카 포럼 개회식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프리카 15개국 외교장관(대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네갈 정상회담

“아프리카 원조 3년간 2배 늘릴 것”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첫 중점 공여대상은 아프리카다.
정부는 11월 23일 열린 한·세네갈 정상회담과 11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린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11월 25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극빈국가들에게 희망이자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11월 23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으로서 원조 공여국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2일 방한한 와드 세네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와드 세네갈 대통령도 “한국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화답했다.

정상회담 서두에서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잘 알려진 국가다. 눈부시게 빠른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한 와드 세네갈 대통령은 세네갈에 대해 “먹을 물이 없고, 집이 없고,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고 입을 옷이 없다”며 세네갈이 처한 여섯 가지 빈곤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도 60여 년 전 독립한 이후 국민의 70퍼센트가 그 같은 빈곤의 여섯 가지 조건 속에서 살았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네갈의 여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전체 예산의 40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세네갈 대통령의 말에 “한국도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데는 교육의 덕이 컸다.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열악해도 자녀를 공부시켜 나라 발전에 기초를 쌓았다. 한국은 천연자원의 90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만큼 불리한 조건이지만 교육과 기술로 나라를 만들어왔다. 그래도 세네갈은 우리보다 자원 조건이 좋은 국가여서 와드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를 조만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동아DB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향후 3년간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2005년 4천2백40만 달러에서 2008년 1억7백10만 달러로 2.5배로 늘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2배로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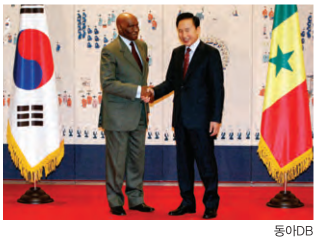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의 무상원조 중점협력 대상국인 세네갈에 대해 농업과 기초사회 서비스 분야, 교육훈련 분야 위주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네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협력 약속도

정상회담에서 와드 세네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 연안의 석유개발 탐사 등 자원개발, 원양어업 등 수산업 분야 협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네갈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아프리카 등 G20 비회원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수렴해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되도록 빠른 시기에 아프리카를 방문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아프리카 포럼 녹색사업 분야 공동협력 합의


동아DB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열렸다. 장 핑 위원장과 메스핀 세욤 에티오피아 외교 장관, 레이몽 치반다 콩고민주공화국 국제협력부 장관 등 아프리카 지역별 주요 1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및 기술원조 공유 등 자원외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3년간 2배로 늘리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연수생 초청 규모도 2012년까지 5천명 선까지 늘리고 아프리카지역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1천명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프리카에 녹색기술을 전수하고 녹색사업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경제는 2004년 이후 매년 5퍼센트 이상 성장해왔고 올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한 뒤 "한국은 반세기 만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노하우와 인적 자원 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아프리카는 지구촌 녹색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녹색자원의 보고(寶庫)인 만큼 한국은 이러한 녹색비전을 함께 나누며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와 사막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 원조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은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장 핑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아프리카 주요국 외교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했다.

와드 세네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보여준 관심과 우정에 사의를 표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 외교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지금까지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아프리카 외교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와드 세네갈 대통령은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과 만나 세네갈의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환경생태학 석학 마이어스 옥스퍼드대 교수

“한국, 녹색성장 실천 의지 가장 높아”

11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녹색기술 심포지엄에서 ‘비즈니스와 환경-윈윈 전략’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한 옥스퍼드대 노먼 마이어스 교수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지식경제부



노먼 마이어스 옥스퍼드대 교수가 11월 25일 열린 ‘국제 녹색기술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를 절반만 사용해 오염물질 발생이 절반으로 줄면서도 인류가 2배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다. 이를 조속히 현실에 적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환경생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노먼 마이어스(65)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2009 국제 녹색기술 심포지엄’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팩터 4(에너지를 절반 줄여 2배의 풍요를 이뤄내면 결국 4배의 효과를 낸다는 의미)’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현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을 4배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충분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 세계에서 백열전구를 절전 형광등으로 교체하더라도 전 세계 화력발전소 발전량 가운데 5분의 1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어스 교수는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을 10배 증가시킬 수 있는 ‘팩터 10’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사용해 생산성이 50년 만에 1백 배나 향상된 적이 있었다”며 “에너지 효율을 10배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은 환상이 아니라 충분히 개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 없는 소변기를 설치해 연간 25만 리터의 용수를 아끼는 런던 히스로 공항이나 물,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세척기 등은 고효율 에너지 사회의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생활 구석구석에서 새고 있는 에너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건물,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는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며 “영국에서는 건물의 열 손실 중 40퍼센트가 지붕과 벽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단열 향상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전 세계 30, 40개 국가를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이 분야에 실천 의지를 보이고 성과를 내는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절반으로 2배 풍요 이루면 효과는 4배”

마이어스 교수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먼 마이어스 교수는 환경생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쉘과 IBM, 매킨지 등 글로벌 기업의 환경고문을 역임했으며, 이러한 공로가 인정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세인트 조지 훈장을 수상했고, 유엔 환경상을 받았다. 2007년 〈타임〉지에 ‘환경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G

글 · 김경도(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지로 제주도가 확정된 후 이만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 김태환 제주지사(오른쪽에서 세번째) 등이 인증서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쾌거

환경 올림픽 제주서 열린다

'환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세계 최대 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4년마다 여는 국제회의로 1백60개국에서 1만여 명의 IUCN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 · World Conservation Congress) 2012년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은 11월 23~25일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를 제주로 결정하고 2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창설돼 1백60개국 1백12개 정부기관과 8백70여 개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 환경단체다. 자연보전,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기 때문에 세계자연보전총회는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 환경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환경 강국' 이미지도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제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로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제사회에서 환경 분야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면,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로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도 선도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에 이어 세계자연보전총회까지 유치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 경제효과 1천억원 이상

세계자연보전총회에는 세계 곳곳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나라를 찾게 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효과만도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의미와 부합하는 생태관광, 2010~2012년 한국 방문의 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상 최고의 환경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로서는 2007년 6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은 두 번째 환경 분야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또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를 알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개발원조위원회 에크하르트 도이처 의장

"원조하는 한국 세계가 부러워 할 일"

우리나라가 11월 25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에 앞서 DAC의 에크하르트 도이처 의장을 만나 한국의 DAC 가입이 갖는 의미와 DAC의 역할 등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의 도이처 위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한국의 DAC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의 이번 가입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受援國)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았고 이를 밑거름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내 단시일 내에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의 이번 가입은 DAC 입장으로 보나 한국으로 보나 매우 놀라운 성공 스토리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축하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경제력은 13위권이다. 그런 한국이 그동안 원조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입을 반대한 회원국은 없었나.

한국 내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제사회에서 그런 비난을 들어본 일이 없다. 물론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나라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원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물론 현재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DAC 가입조건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몇 년간 ODA를 크게 늘렸다. 또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퍼센트인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올리기로 약속했다. DAC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약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OD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부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등에서 모두 ODA에 가입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DAC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은 새로운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커지는 동시에 위상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외교 역량은 한층 강화된다. 한국은 분단국으로서의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국제사회에 오픈 마인드로 나서게 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의 가입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얻는 부분도 결코 적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간 교역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확산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빈국들의 경우 금전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등 먹고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ODA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DAC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를 하는데 특정 국가의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무엇보다 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가난한 나라를 우선 금전적으로 돕고 그 다음으로는 언제까지나 원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그때까지 꾸준히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모두 DAC가 해야 할 몫이다. G

글 · 전진배(중앙일보 파리특파원)



동아DB

에크하르트 도이처(Eckhard Deutscher)
독일 출신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국제 원조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2002~2008년 세계은행 독일담당 이사로 재직했으며 코스타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 민주정치연구소장을 맡았고 멕시코와 페루 대학에서도 강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DAC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원조 선진국 된 한국의 과제

"1인당 16달러 원조… 무상 지원 늘려야"

우리나라가 11월 25일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원조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 우리나라가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DAC는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사정이 어려운 나라에 일정액 이상의 개발협력원조를 하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선진국 모임으로 통한다.

#2 한국에서 46년 동안 활동해온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사무소가 12월 말로 문을 닫는다. 1963년 서울에 설치된 UNDP 한국사무소는 농업, 과학기술, 교육 등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관장해왔으나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대신 정부는 UNDP에 신탁기금을 출연키로 하고 방한한 헬렌 클라크 총재와 11월 23일 협정을 맺었다.


동아DB

아직 우리나라의 원조액은 DAC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친다. DAC 가입으로 국제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최근 일어난 이 두 사례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 원조는 그 규모나 실태를 따져볼 때 여전히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원조의 절대 규모가 한국의 경제력에 여전히 못 미친다. 2008년 기준 한국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8억 달러 안팎으로 국가별 순위로는 19위에 해당한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09퍼센트다.

유엔의 권고치인 0.7퍼센트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DAC 평균치인 0.3퍼센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DAC 회원국 국민이 1인당 1백34달러를 개도국 발전을 위해 지원했다면 우리는 1인당 16달러를 기부한 셈이다. 정부는 해마다 예산을 대폭 늘려 2015년까지는 0.25퍼센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수원국에서 공여국 탈바꿈

절대 액수도 문제이거니와 한국이 제공하는 ODA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DAC가 권장하는 규범과는 동떨어져 있다. 우선 유상 원조의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어 무상 원조가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DAC의 추세와 어긋난다. 또한 원조를 제공하고서도 사용 방법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구속성(tied) 원조가 75퍼센트에 이르는 것도 2002년 채택된 DAC의 비구속화 협정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이는 정부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대외 원조를 처음 시작하면서 ODA를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켜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ODA는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집행하는 무상 원조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를 통한 유상 원조(양허성 차관)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EDCF 원조는 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며 공여국인 한국의 자재나 장비, 인력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는 ODA 사업 또는 후속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DAC는 원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구속성 원조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집행하는 ODA는 거의 비구속성이며 유상 원조의 비율도 최근에는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이 DAC 회원국에 걸맞은 ODA 공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대폭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G

글 · 예영준(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겨울 내복은 보약 한 제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으면 든든하거든요. 실제로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섭씨 3도나 올라간대요.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 난방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죠.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최후의 자존심이라며 내복을 거부하던 멋쟁이들도 요즘엔 내복을 입는대요. 얇아서 티 안 나고 겉옷보다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내복을 선물했죠. 내복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번 겨울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복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요? 올 한 해도 고마웠다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시라고요.

진행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
아이모델 · 박은우 박가영 노민재 / 스타일리스트 · 안수명 /
의상 협찬 · 퍼스트원 / 포인트 스티커 협찬 · 잇스틱스



겹옷 하나 내복 한 벌…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 온도 20℃

溫맵시 뽐내세요 지구도 즐거워요

겨울철 난방 온도는 섭씨 20도면 충분하다. 지나친 난방은 에너지 낭비일 뿐더러 건강에도 좋지 않다. 내복을 입거나 옷을 여러 겹 입는 ‘온(溫)맵시’로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자.



조영철 기자

김근영(왼쪽), 최정남(오른쪽에서 두 번째) 씨 부부는 난방 온도를 낮추고 내복과 스웨터, 조끼를 입고 지낸다. 놀러 온 조카들은 내복 차림을 보여주었다.

“내복 입기를 생활화하면 추위에 강해집니다. 겨울에 웬만큼 기온이 내려가도 그다지 추운 줄 모르겠어요. 또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도 덜 다치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경기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 근무하는 김근영(35) 씨의 내복 예찬론이다. 김근영 씨뿐 아니라 부인 최정남(33) 씨, 딸 서준(2)이와 놀기 위해 자주 오는 조카 김민지(12), 김민서(5) 양과 송우혁(6) 군도 겨울에 내복 입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김 씨는 환경재단에 근무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절감에 신경을 쓰지만 근검절약했던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저희 집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보일러 온도를 22도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내복 위에 스웨터를 입고 조끼를 덧걸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손님이 오면 집이 왜 이렇게 춥냐고 하죠.”

덕분에 한겨울에도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가 15만원 정도 나온다. 집 넓이와 식구 수가 같은 다른 집과 비교해도 5만원가량 덜 나오는 것이다.

김 씨는 요즘 내복 입기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반갑다고 했다.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실천이 부족한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내복 입기를 권하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내복이냐’라거나 ‘요즘 세상에 밖에서 지낼 일이 얼마나 된다고 내복을 입느냐’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내복을 입는 작은 습관으로 작게는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고 크게는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 대체로 동감합니다.”

내복 입기 운동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1월 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복을 입었더니 바깥 추운 날씨를 견디기가 훨씬 쉬웠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복 입기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4, 15일 열렸던 제17차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것을 고려해 내복을 챙겨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입었다”… 실내 온도 19℃ 청와대 ‘내복 대유행’

청와대에서는 내복 입기가 새로운 유행이 됐다. 이 대통령이 내복 입기를 권유한 까닭도 있지만 청와대 실내 온도가 내복을 필요로 할 만큼 낮기 때문이다.

11월 17일 제49차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회의실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데다 회의실 실내 온도를 평소 20도에서 19도로 낮췄기 때문이었다. 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이 대통령이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고 말하자 정운찬 총리는 “저도 그랬다. 앞에 서 있는 분들 대부분이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



령은 "처음에는 몸이 좀 불편했지만 며칠 입어 보니 괜찮다"며 "최근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에서도 에너지 절약 문제를 많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퍼센트 줄이기로 결정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내복을 입은 것은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청와대는 겨울철 난방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자는 취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회의장 온도를 19도 정도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방 온도 3℃ 낮추면 연간 총 1조8000억원 절약할 수 있어

사실 겨울철 난방 온도는 20도면 충분하다. 선진국에서도 겨울철 실내 온도 권장 기준을 20도 이하(미국 18.3도 이하, 영국 19도 이하, 프랑스 19도 이하, 일본 20도 이하)로 잡고 있다.

지나친 난방은 에너지 낭비일 뿐더러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아토피 질환 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춥다고 무작정 난방 온도를 올릴 게 아니라 내복을 입거나 옷을 여러 겹 껴입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정 난방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도 막고 건강도 지키는 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내 난방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도록 내복이나 옷을 겹쳐 입는 '온(溫)맵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온맵시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온(溫)과 옷을 차려 입은 모양을 의미하는 맵시를 합친 말로, 옷을 따뜻하게 입어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_2)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도만 낮추면 전국적으로 1조8천억원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2008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가정 및 건물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1천6백62만9천톤(총에너지 사용량의 10퍼센트)인데,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도 낮출 경우 이중 20퍼센트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약 3도, 카디건을 겹쳐 입으면 2.2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 난방 온도를 3도 낮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열화상카메라로 실험한 결과 내복을 입었을 때 표면 온도는 18.6도, 내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21.8도로 나타났다. 내복을 입은 경우가 입지 않은 경우보다 3도가량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은 내복의 단열효과로 그만큼 체온을 덜 뺏겨 추위를 덜 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맵시는 무조건 두껍게 입는 것이 아니다. 두껍게 입으면 움직임이 둔해 활동이 불편해지고 보온효과도 오히려 떨어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혜승 연구원은 "얇은 내복부터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옷감 내 공기 함유량을 높여 더 따뜻하고, 촘촘한 소재보다 짜임이 성긴 것이 공기를 많이 저장해 보온효과가 더 좋다"고 설명했다.

"양복이나 재킷 안에는 조끼나 카디건을 입으면 보온뿐 아니라 실내에서 상의를 벗고 일할 때도 멋과 활동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목도리는 목을 따뜻하게 감싸줄 뿐 아니라 어둡고 단조로운 겨울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장갑을 끼면 소매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게 되어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정 연구원은 온맵시야말로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방법이라며 온맵시 가이드북을 발행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11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내복과 조끼를 입었다고 하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신도 입었다며 웃고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감기·여성질환·당뇨도 예방

몸이 따뜻하면 만병을 예방할 수 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물론 여성 생리질환, 말초순환장애, 당뇨, 비만 등 많은 질환이 몸이 차갑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 내복 입기, 옷 겹쳐 입기 등 온(溫)맵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온(溫)맵시 방법에는 내복 입기, 옷 겹쳐 입기 등이 있다. 온맵시를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온을 유지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의학자들은 체온 조절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생리학자 매트 클루거는 "열은 감염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 그 증거로, 감염된 도마뱀은 체온을 2도가량 올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찾아 움직인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새끼 토끼들도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없어 병에 걸리면 체온을 올려줄 따뜻한 장소를 찾는다"고 주장한다.

또 아베 히로유키 등 일본의 여러 의학자들은 체온이 0.5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5퍼센트 저하하고, 1도 오르면 면역이 6배 정도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체온이 높으면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도 활성화된다는 평범한 원리다.

체온 떨어지면 기초대사율도 떨어져… 비만의 원인도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은 당뇨도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기 쉽다고 말한다. "단것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수치가 높아진 사람은 체내의 당분이 연소되지 않고 혈액 속에 노폐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체온이 낮아 기초대사율이 떨어짐으로써 당분이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원장은 비만도 체온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몸이 차가우면 체내 지방과 당분의 연소가 방해를 받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노폐물이 세포 속에서 물에 젖은 빨래처럼 늘어지면 체중이 늘어나 비만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고민하는 하체 비만은 하반신이 차가워져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느려지면서 혈액과 노폐물이 고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인간의 평균 체온은 36.5도인데, 몸이 이보다 차가워지면 체내의 모든 화학반응이 느려지면서 대사활동의 산물이 찌꺼기로 남는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혈액을 더럽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고 본다.

체온·피부 수분 잡아주는 내복… 아토피 환자 등에 ‘강추’

그런데 내복을 입으면 3도 정도 체감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열화상카메라로 내복의 보온 효과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내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안 입었을 때보다 표면 온도가 3도가량 낮았다.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방출하는 열이 적어 체온을 덜 빼앗긴다는 의미다. 피부는 항상 수분을 외부로 발산해 피부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내복을 입으면 밖으로 빼앗기는 수분이 내복과 피부 사이에 머무르면서 체온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낸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될뿐더러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게 되어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커진다. 그러면 인체가 온도차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더 약해진다.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신종플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복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춥다고 난방 온도를 올리면 실내가 건조해진다. 이화여대 목동 건강증진센터 이홍수 소장은 “겨울철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해져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평소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나 아토피 환자가 있다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내복을 입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복은 피부 수분이 빼앗기는 것을 막아주고 합성섬유로 된 겉옷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내복을 입으면 옷맵시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내복 입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복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입어야 한다. 하복부가 차면 생리불순, 냉대하 등의 질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상곤 원장은 여성의 생리는 체온과 관계가 깊다고 말한다. 그는 “자궁은 혈액을 모으는 기관이므로 자궁이 차가워지면 혈액이 굳어져 끈적끈적해지면서 생리에 문제가 생기고 임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다



‘체온이 1도 정도 낮다고 무슨 대수냐’고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도쿄여자의대 부속 아오야마 여성·자연의료연구소 자연의료부분의 가와시마 아키라 교수는 ‘냉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가와시마 교수는 저서 <10년 더 젊어지는 따뜻한 몸 만들기>(아주좋은날 펴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시마 교수에 따르면,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플루에 노출되기 쉬울뿐더러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소화기나 생식기 계통의 질환에 걸리기 쉽다.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도 백혈구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등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변비, 비만, 우울증, 암 등 크고 작은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낮다는 것이다. 가와시마 교수는 많은 현대인이 체온이 낮은 ‘냉증’을 앓고 있다면서 특히 겨울철에는 내복, 머플러, 양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하게 해야 할 부분은 넓적다리와 엉덩이, 배와 허리다. 근육과 지방이 많은 곳이므로 내복을 입어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좋다. 상반신에서는 팔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긴소매나 반소매 속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 목, 손목, 발목 등 신체부위 중에서 ‘목’이라는 글자가 붙은 곳은 혈관이 노출돼 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의 펌프 작용을 촉진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겨울에는 머플러를 두르는 게 좋고, 복사뼈 위까지 덮는 긴 양말을 신는 게 좋다. 발은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차가워지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발바닥에 땀이 배서 오히려 차가워지기 쉽다. 발을 죄지 않는 낙낙하고 얇은 양말을 두 개 겹쳐 신으면 발뿐 아니라 온몸이 따뜻해진다.

냉증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냉증을 의심할 수 있다!

- 안색이 나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손발이 항상 차다.
-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린다.
- 늘 어깨가 결리거나 허리가 아프다.
- 평소 체온이 36도 이하다.
- 쉽게 피로를 느낀다.
-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 변비 기미가 있다.
- 설사를 자주 한다.
- 빈혈 기미가 있다.
-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 여름에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동아DB

방송인 & 연예인들의 내복 예찬

"야외촬영에 필수"

아직도 '촌스럽다' '옷맵시가 살지 않는다'는
편견 때문에 내복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내복 입기는 친환경 실천의
한 방법이자 따스한 겨울나기의 최고 노하우다.
내복을 찾는 사람들이 말하는
당당히 '내찾사'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동아DB



오! 부라더스 제공



동아DB

연예인과 방송인들은 "내복은 든든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말한다.

어김없이 겨울이 돌아왔다. 추운 겨울이면 제일 먼저 '내복'이 떠오른다. 하지만 '패션'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내복 입기가 조금은 꺼려진다. 거기다 예전 '빨간 내복'이 떠올라 촌스럽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복은 겨울철 친환경 생활을 지키는 선두주자다. 내복을 입으면 체내 온도를 3~6도 올릴 수 있어 에너지 자원을 아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내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겨울철 녹색생활은 잘 지켜질 수 있다.

지난 11월 14일 방송된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 '내복'과 관련된 깜찍한 발언이 있어 화제를 모았다. 이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는 소녀시대 티파니의 '빨간 내복' 예찬론 때문이었다.

함께 MC를 맡고 있는 소녀시대 유리가 "겨울에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묻자 티파니가 "비밀인데 빨간 내복이 필수"라고 답했다. 이에 유리가 놀라며 "우린 아직 팔팔하고 깜찍한 나이다"라고 말하자 티파니는 "몰라서 그렇다. 내복이 에너지 충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소녀시대 티파니가 '내복은 에너지'라고 말한 것처럼 내복을 즐겨 입는 연예인과 방송인에게 '내복'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서 '남성인권보장위원회'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황현희는 "개그맨에게 내복은 늘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내복이 갖고 있는 촌스러운 이미지를 개그 소재로 희화화해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시대 티파니 "내복은 나의 에너지"

대부분 처음 내복을 입게 된 계기를 꼽으라면 어머니의 당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황현희도 어렸을 적 겨울철마다 내복을 꼭 챙겨 입으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취미로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레 내복을 입게 됐다고.

그는 "요즘은 내복의 종류가 엄청 많다. 예전처럼 무조건 두껍지도 않아 등산 갈 때 기능성 내복을 챙겨 입고 가면 땀도 잘 흡수되고 보온성도 높아 좋다"며 요즘 나온 기능성 내복들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다.

KBS 오락 프로그램 〈상상 더하기〉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이지애 아나운서도 내복 입기에 동참하는 똑똑한 환경 지킴이다. 그는 "내복을 입는 게 귀찮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 후세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며 "겨울철 내복 입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내복을 입으면 괜히 둔해 보인다는 느낌 탓에 젊은 여성들은 입기를 꺼린다. 게다가 사무실이나 집이 난방이 잘돼 있어 내복 입기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졌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내복의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내복 입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독일인들은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스웨터나 내복을 껴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실내 기온이 낮은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겨울에도 아파트에서 반팔을 입는 등 실내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작은 인식의 변화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요."

또한 그는 "추위에 견딜수록 정신력도 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내복 입기 운동을 통해 추위에 적응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다. 14년째 SBS 라디오 프로그램 〈이숙영의 파워 FM〉을 진행하는 방송인 이숙영은 "겨울 새벽에는 방송을 준비하러 갈 때마다 빼먹지 않고 내복을 입는다"며 "내복이 좋은 방송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보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이면 온 가족이 집에서 내복을 입거나 간편한 옷차림을 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아이들에게 내복 물려주기를 하면서 친환경 살림에도 앞장서고 있다.

"독일인들은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스웨터나 내복을 껴입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내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작은 인식의 변화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요."

평소 추위에 약한 뮤지컬 배우 최정원도 내복 마니아다. 다음 달 뮤지컬 〈시카고〉 지방공연 준비로 한창 바쁜 요즘 매일 내복을 입고서 무대 연습을 한다. 공연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초등학생 딸에게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복만큼은 꼭 챙겨 입힌다"고 말했다.

출산 후 등산과 스트레칭으로 20킬로그램을 감량해 최근 MBC 아침드라마 〈멈출 수 없어〉에 출연 중인 탤런트 임채원은 가족들에게 내복 입히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요즘 강원도에서 드라마 촬영 중인 남편 최승경을 위해 가볍고 신축성 있는 기능성 내복을 챙기고 얇은 옷들을 겹쳐 입게 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다. 그는 "야외촬영이 많은 연기자들에게 '내복'은 필수"라며 "입는 번거로움만 감수하면 내복은 추운 겨울 촬영할 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로큰롤 그룹 '오! 부라더스'는 내복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담아 지난 2007년 '내복이 좋아'라는 곡을 만들었다. '빨간 내복 입고서 나가면 찬 바람 스쳐도 괜찮아. 올해도 내복을 입을까, 추운 겨울 따뜻하게 행복해'라는 노래 가사의 구절 하나하나가 마치 '내복을 찾는 사람들'이 만든 재미난 이야기 같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내복은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오! 부라더스 멤버들처럼 올겨울 옷장 깊이 숨겨두었던 내복을 한 번 꺼내 입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G

글 · 김민지 기자

겉옷이야… 내복이야?

패션은 변신이다

내복이 진화하고 있다. 진분홍색, 보라색, 연두색…. 경쾌한 색으로 티셔츠처럼 받쳐 입을 수 있는 겉옷 같은 내복이 젊은층에게 인기다. 얇으면서 따뜻하며 몸매까지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미니스커트용, 반소매용, 피부 보습용, 겨울 레포츠용 등 디자인과 기능이 다양한 내복을 골라보자.



"이건 내복이 아니야. 패션 아이템이지." 한 젊은 여성이 내복 고르기를 주저하는 남자친구에게 건네는 말이다. '유니클로' 서울 명동 매장의 매니저 김태우 씨는 패션 센스가 뛰어난 젊은 남녀 커플이 '커플룩'으로 내복을 고르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유니클로의 패션 내복 '히트텍'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18만 장이 팔렸다. 올해는 1백만 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셔츠처럼 겉에 입거나 레이어드 스타일로 겹쳐 입을 수 있는 패션 내복으로 입소문이 나서인지 판매 속도가 지난해의 10배 이상"이라는 게 김 씨의 얘기다.

유니클로 매장 바로 옆에 최근 문을 연 이랜드 '스파오'의 패션 내복 코너도 젊은이들로 붐빈다. 여기서 만난 취업 준비생 박모(25·서울 청구동) 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가을부터 티셔츠처럼 받쳐 입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내복인 줄 모른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복 매출 신장의 일등공신은 젊은

층이다. 현대백화점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내복 구매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 고객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퍼센트 늘어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20대도 41퍼센트의 신장률로 40대의 33퍼센트를 앞선다. '좋은 사람들'이 자사의 연령대별 내복 판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 대비 2008년에 젊은 층의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 20~40세 연령층이 2005년에는 구매자의 14퍼센트였지만, 2008년에는 2배에 가까운 25퍼센트로 늘었다는 것이다.

내복을 취급하는 전문 브랜드, 백화점, 대형마트는 올겨울 들어 전 연령대에 걸쳐 내복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진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 브랜드인 'BYC' '비비안' '좋은 사람들'은 11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30퍼센트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겨울 내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퍼센트 늘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인 H몰의 내복 매출은 43퍼센트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의 내복 매출은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퍼센트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내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퍼센트 늘었다. 11월 5일부터 일주일간 '발열 소재 내의 기획전'을 연 신세계 이마트는 내복 매출이 20퍼센트 늘었다. 신세계 이마트 잡화팀 김대옥 바이어는 "올해 내의 기획전은 내복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0퍼센트 물량을 늘리고 진열 공간도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겉옷으로 알 만큼 패셔너블한 제품과 특수 기능을 더한 제품 출시로 젊은 층의 내복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스타일 해쳐서 못 입는 내복의 시대는 갔다. 올겨울 취향과 목적에 꼭 맞는 내복 한 벌 장만해보자.

이 같은 매출 신장에 대해 현대백화점 바이어 염지훈 씨는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신종플루에 대한 염려로 내복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비안' 디자인실의 우연실 실장은 "내복이 겉옷처럼 화려해지고, 취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은 한 벌에 1만원대부터 10만원대 이상 고가 제품까지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하다.

올해 눈에 띄는 내복 종류는 겉옷과 속옷의 경계가 없는 내복, 맵시 살리는 바디핏 스타일 내복, 화려한 패턴 내복, 얇으면서 따뜻한 발열 내복, 예민한 피부를 위한 친환경 소재 내복, 미니스커트·반소매 등에 적합한 짧은 길이 내복, 자전거·등산 등 아웃도어 스포츠용 내복 등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1 분홍색·보라색·연두색… 겉옷과 속옷의 경계를 허물다



정경택 기자

'유니클로'의 텔레비전 광고 '세계의 겨울을 바꾼다'는 겉옷 같은 내복이라는 최신 트렌드를 보여준다. 화면은 도쿄, 뉴욕, 런던의 거리를 각각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클로즈업한다. 겨울인데도 젊은이들은 두꺼운 겨울 코트 대신 재킷을 걸치고 있다. 이들이 재킷 속에 입은 옷은 유니클로의 내복. 겉에 드러내도 손색이 없다는 게 기존 내복과 다른 점이다. 녹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등 20여 가지 색상도 파격적이다. 이에 맞서 이랜드 '스파오'는 최근 겉옷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패션 내복 브랜드 '웜히트'를 출시했으며, 10만 장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다.

스타일도 브이넥, 라운드넥, 반소매, 레깅스 스타일의 하의 등으로 다양해 내복의 고정관념을 깬다. '트라이 히트업'도 젊고 세련된 디자인의 캐미솔, 긴소매, 반소매, 타이츠, 목 폴라 등 10가지 스타일로 출시해 겉옷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군살 정리… 맵시 살리는 바디핏

뚱뚱해 보일까봐 내복을 입지 않았던 젊은 층에게는 바디핏(Body Fit) 제품이 제격이다. 몸에 꼭 맞게 밀착되는 원단을 사용해 겉옷 밖으로 드러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봉제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 끝부분을 봉제선 없이 처리하기도 했다.

'비비안'의 바디핏 내복은 스타킹과 같이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 몸에 잘 밀착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트라이엄프'의 내복은 특히 복부 부분이 밀착되어 군살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3 검은색·꽃무늬… 화려한 패턴

올 여성 내복은 무늬와 색상이 한층 화사해졌다. 화려한 꽃무늬가 눈에 띄고 색상도 짙은 와인색, 검은색 등 과감해졌다. '엘르 이너웨어'는 검은색 바탕에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가 찍힌 여성용 내복을 출시했다.

'와코루'는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텐셀 섬유에 커다란 꽃무늬 패턴을 넣은 내복을 선보였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내 '비비안' 매장의 민나영 매니저는 "꽃무늬 패턴은 50, 60대에서 선호하는 데 비해 20, 30대는 피부색과 유사한 색상, 40대는 크림이나 핑크 등 은은한 색상을 많이 찾는다"고 말한다.



트라이

4 녹차 · 해조류 · 숯… 민감한 피부를 위한 친환경 소재

피부가 민감한 사람을 위해 자극이 적은 천연 소재를 가공한 친환경 내복도 각광받고 있다. '비너스'는 울과 비슷한 감촉과 포근함을 지닌 아크릴 섬유를 사용한 진주 가공 내복을 선보였으며, 건조한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다고 업체는 말한다. '와코루'의 멀티 극세사 내복은 자외선 차단, 정전기 발생 억제 기능이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BYC'는 피부에 좋은 녹차의 향을 원사에 가공한 내복과 원적외선을 방출해 항균 방취 기능이 있는 내복을 판매하고 있다. '비비안'은 심해 바다의 해조류를 가공한 시셀 섬유로 된 내복과 숯 성분을 함유한 내복을 출시했다. 또 우유 성분이 함유된 원사를 사용한 '비비안'의 남성용 내복은 피부 자극이 적고 보습 효과가 좋아, 겨울이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남성들에게 적합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트라이'는 숯과 폴리에스테르가 합성된 코지론 원단을 사용한 '참숯 동내의'를 출시했는데, 항균·탈취·원적외선 방사 효과가 장점이라고 업체 측은 말한다.

5 자체 열 발산… 발열 내복

두꺼운 면 원단의 내복은 구식이다.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폴리우레탄 등 합성 원단을 사용해 두께는 얇지만 발열 기능이 있어서 열을 발산하는 발열 내복 종류가 많다. 발열 원단은 몸의 미세한 수분을 흡수해 열을 내는 원리로, 일반 면 소재보다 따뜻하며 빨리 마르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용으로도 적합하다. '트라이 히트업'은 몸의 수증기를 흡수해 열을 발산하는 발열 소재인 서머기어 원단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임스딘'은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중공(中空) 섬유를 사용해 보온효과가 좋고 건조 속도가 면보다 2배 빠른 서모라이트 원단 내복을 출시했다. '와코루'의 내복 브랜드 '에쿠스'도 자체 발열 소재로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6 짧은 길이 · 브이넥… 미니스커트 · 반소매 상의용

요즘은 겨울철에도 반소매 상의나 미니스커트 차림이 흔하다. 이런 옷차림에도 보온을 할 수 있도록 길이가 짧은 3분이나 5분 내복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또 기존의 9분 내복보다 짧은 7분 내복은 팔꿈치와 무릎을 조금 덮는 길이로, 내복이 겉옷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인 겉옷을 위해 깊게 파인 브이넥 상의도 출시돼 있다.

'비비안'은 피부에 자극이 적은 오가닉 스판 소재로 된 3분, 7분 길이의 내복을 판매한다. 3분 내복은 미니스커트 안에 입기 좋다. 'BYC'는 여성용으로 상의는 3분 반소매 길이로, 하의는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5분 길이, 남성용으로 상의는 9분, 하의는 7분으로 구성된 내복을 각각 판매한다. '보디가드'는 얇은 정장 바지 때문에 하의 내복을 입지 못하던 남성들을 위해 스판 소재의 블랙 스판 하의와 반바지 스타일 스판 하의를 선보였다.

7 고신축성, 방풍, 방한… 아웃도어 스포츠용 내복



등산, 스키, 사이클링 등 겨울에도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덩달아 내복 판매도 늘고 있다. '트라이'는 겨울 레포츠 활동에 적합한 고기능성 소재의 '티-스포츠 쿨맥스' 시리즈를 선보였다. 일반 면보다 땀이 빨리 마르고, 통풍성과 항균 기능이 탁월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은 자체 개발한 아웃도어 전문 내복 바디핏 서포트 심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웃도어 전문 내복은 신축성이 뛰어나고 외부의 한기를 차단하며 보온 기능이 우수한 게 특징이다.

지구를 구하는 빨간 내복

글과 그림 · 최영순



전기는 물론 석유와 관련된 일체의 제품을 거의 쓰지 않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발생시킨 탄소를 없애기 위해선 자작나무를 세 그루나 심어야 한답니다.
그럼 평소처럼 일주일을 살았다면 도대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나요?
– 영화배우 박진희 저탄소 프로그램 참여 소감 중에서


장갑이나 부츠를 착용하면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 좋고, 패션 포인트도 될 수 있다.

코오롱 패션 제공

"멋 내다 얼어 죽을라? 모르시는 말씀!"

기본 공식만 잘 지키면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두툼한 옷을 입자니 둔해 보일 것 같고 여러 옷을 마구 껴입자니 촌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때 내복과 겹쳐 입기의 기본 공식만 잘 지키면 세련된 옷차림도 연출하고 환경 지킴이로도 앞장설 수 있다.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지고 있다. 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패션을 생각하는 20, 30대의 젊은 층과 사무적인 약속이 많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두꺼운 소재의 옷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가의 겨울철 의상을 구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럴 때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내복 입기다. 내복을 입으면 실제 3도 정도 보온효과가 있다. 이 효과만큼 온도를 낮추면 난방비를 20퍼센트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렇듯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내복 입기는 겨울철 옷 입기의 기본이다. 그러나 내복을 입으면 옷맵시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내복을 꺼린다는 것이 문제다. 시중에 나오는 겉옷들이 몸에 딱 붙는 것들이 많아 내복을 입으면 부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은 내복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양한 종류의 내복들이 많다. 특히 매우 얇고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내복들은 깔끔한 옷차림의 필수품이다. 과거에는 원단의 두께와 보온성이 비례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기능성이 있는 특수 원단을 사용해 만들어 얇으면서도 따뜻하다.

특수원단 · 햄 처리된 내복으로 '슬림 핏'

우연실 '비비안' 디자인실 실장은 "중요한 미팅 때 이런 얇고 신축성 있는 내복을 입으면 스타킹같이 몸에 밀착되고 겉옷에 울퉁불퉁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 매끈한 옷맵시를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복의 봉제선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걱정이라면 소매 끝 부분을 봉제선 없이 햄 원단으로 처리한 제품을 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매일 출퇴근하고 실내 근무가 잦은 사람이라면 피부 건강에 좋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내복을 선택한다. 실외에 비해 사무실 안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3분이나 7분 내복을 입는 것이 좋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반팔 소매의 니트도

나도 겨울 패셔니스타!

즐겨 입기 때문에 일반적인 9분 길이의 내복보다 짧은 3분이나 7분 내복은 유용한 아이템이다.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도 짧은 길이의 내복 하의를 입어주면 출퇴근길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겨울철에는 스키나 스노보드 등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레포츠를 즐길 때는 운동량이 많아 몸이 후끈거리는 듯 느껴지지만 잠시 쉬는 동안에는 체온이 떨어져 추위를 느낄 수 있다. 우 실장은 "스키복 안에 입을 내복은 품이 좁아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이 좋다. 품이 넓으면 움직임에 따라 마찰이 일어나기 쉽고 활동하기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를 타는 체질이라면 최첨단 소재로 보온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디자인이 세련돼 겉옷으로도 활용 가능한 발열 내복을 입는다. 유선미 '트라이' 디자인 실장은 "발열 소재 내복은 얇고 보온성이 높아 착용감이 좋다. 겉옷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도 많아 겨울철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복과 더불어 따뜻한 온(溫)맵시의 패션 포인트는 겹쳐 입기, 즉 레이어드 코디법이다. 일명 웜비즈(Warm Biz)라고도 불리는데 사무실 난방 온도를 섭씨 20도 정도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내복이나 겹쳐 입기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도 하자는 친환경 패션 스타일이다. 노소영 삼성패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웜비즈 스타일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감온도를 유지하면서 세련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갑으로 손목과 옷소매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손가락장갑보다 벙어리장갑이 체감온도 유지에 효과적이다. 장갑을 끼고 난 상태에서도 팔목까지 올라오는 핸드 워머를 착용해 따스함을 유지한다.

웜비즈 패션의 대표 아이템은 니트와 카디건이다. 보온성과 실용성을 겸해 코트나 재킷 아래 수월하게 껴입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니트나 카디건을 멋스럽게 겹쳐 입으면 옷 사이 공기층이 생겨 훨씬 따뜻할 뿐만 아니라 같은 옷으로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여성에게는 퍼 베스트나 롱 카디건을 겸해 입어도 부담 없는 터틀넥 니트를, 남성에게는 불룩한 배를 가릴 수 있는 목선이 V자로 파인 니트를 추천한다. 최성원 '빨질레리' 디자인 실장은 "회색 코트에 바이올렛 카디건과 네이비 셔츠를 겹쳐 입거나 브이넥 레드 니트와 화이트 셔츠를 겹쳐 입으면 따뜻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웜비즈 룩의 기본은 여러 아이템을 껴입어 보온효과를 높이는 것에 있다. 목과 손목, 발목을 감싸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목은 노출 부위가 넓고 온도에 민감하므로 머플러, 니트 후드, 넥 워머 등으로 감싸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은 머플러나 넥 워머가 잘 어울리고 여성은 목 부분이 풍성한 터틀넥 스웨터를 입어 머플러를 두른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머플러의 경우 촘촘히 짜인 것보다 성기게 짜인 니트 소재 목도리가 공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 보온효과가 높다.

장갑으로 손목과 옷소매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장갑을 끼고 난 상태에서도 팔목까지 올라오는 핸드 워머를 착용해 따스함을 유지한다. 양말은 체감온도를 0.6도 정도 올려준다. 목이 긴 양말을 신어 발부터 외부 공기 접촉을 줄이고 여기에 부츠나 안감이 털로 된 슈즈를 신으면 좋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제일모직 로가디스

니트는 웜비즈 패션의 대표 아이템이다. 셔츠나 카디건을 멋스럽게 겹쳐 입으면 훨씬 따뜻하다.

효도의 상징? 코미디 소재?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

내복만큼 다양한 얼굴을 가진 속옷이 또 있을까. 때로는 감성을 자극하는 소품으로, 때로는 풍자와 엽기적 상징으로 활용되는 문화 코드이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시대의 거울이기도 하다.


동아DB

내가 아직도 내복으로만 보이니? 내복은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기도 하다.

2002 한일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붉은 악마'가 되기 이전, 우리는 이미 '준비된 붉은 악마'였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미 한 세대 전부터 빨간 내복을 입고 '붉은 악마'로서의 근성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대체 왜 우리 뇌리에는 내복 하면 가장 먼저 '빨간 내복'이 떠오르는 것일까. 대체 왜 내복에는 유독 빨간색이 많았던 걸까. 그건 빨간 내복을 입었던 세대나 '오리지널 빨간 내복'을 구경도 못 해본 세대나 마찬가지다. 빨간 내복을 입었던 세대가 추억을 회상한다면, 빨간 내복을 전해들은 세대는 빨간 내복 소재의 개그나 엽기물들을 떠올릴 것이다.

부족한 염색기술이 빨간 내복을 양산했다

빨간 내복의 유래에 대해 이거다 하고 명확한 것은 없다. 하지만 '설(說)'은 여러 가지다. 마치 지금의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처럼 내복업체들이 내복 판촉을 위해 '빨간 내복을 입으면 액을 막고 복이 온다'는 소문을 내 빨간 내복을 유행시



일러스트 · 이우정

켰다는 설도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염료 가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내복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당시 여성 내복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것은 빨간 염료가 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염색기술의 한계 때문에 가장 물을 들이기 쉬운 색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빨간 내복이 복을 부른다는 가설도 근거가 없지는 않았는지, 남성들도 빨간 내복을 입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들어 빨간 내복은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천하통일을 한다. 당시 빨간 내복은 '효의 상징'이기도 했다.

'문화'가 된 빨간 내복

의류업계의 총아였던 빨간 내복은 대중문화의 중요한 코드이기도 하다. 가수 이문세의 14집 음반 제목이 <빨간 내복>이다. 여기서 빨간 내복은 감성 코드로 사용된다.

"새빨간 내복을 입고 입 벌리며 잠든 예쁜 아이/ 낡은 양말 깁고 계신 엄마 창밖은 아직도 새하얀 겨울밤/ 한 손엔 누런 월급봉투 한 손엔 따뜻한 풀빵 가득…."

남이 입던 낡은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돼 겨울방학 동안 시장 골목 안에서 사과궤짝 하나를 놓고 뽑기 장사를 했던 가난한 소녀는 너무 추워 빨간 내복을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희망편지>라는 책에 실린 이해득 씨의 '빨간 내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사연에 담긴 빨간 내복은 추억의 코드다.

그러다 아파트 생활과 자가용 이용자가 늘고, 대중교통 등의 난방시설이 좋아지면서 보온성의 보루였던 내복의 위상은 격하되기 시작했다. "내복 입다 들키면 레깅스라고 우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간지'가 안 난다는 것이다. 목이나 소매 아래 내복이 드러나 보이기라도 하면 완벽한 패션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이 때문에 내복, 특히 빨간 내복은 패션 트렌드를 거역한 아이콘이 됐다. TV의 코미디와 개그 프로그램에는 '내복남'이 뜨고,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짤방(짤림방지용 사진)'중에도 빨간 내복을 입은 '엽기짤'들이 넘치며 내복은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내복도 나라마다 '스펙'이 다르다

내복을 입는 것이 우리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공포의 빨간 내복'도 중국에서는 대접이 달라진다. 빨간색을 선호하는 데다, 특히 음력설이 오기 전 새해가 자신의 띠인 사람은 빨간 내복을 장만해 입어야 복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외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더운 나라에서도 긴 내복을 입는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중동 남성들의 겉옷이 대개 흰색이다 보니 이 지역에 수출되는 남성용 내복은 대부분 백색이다. 아프리카 지역 역시 흰색을 선호한다.

특이한 것은 중동 지역 수출 내복 대부분이 남성용이란 점이다. 여성용은 사이즈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지 업체들이 여성을 만나기가 어려워 표준 사이즈를 만들지 못한다.

'내복 스펙'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인은 허리는 짧은 반면 엉덩이가 크다. 스페인인은 다리통이 굵다. 백인에 비해 흑인은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늘고 길다. 그나마 그 나라 '내복 스펙'을 알면 거기에 맞춰 수출하면 되는데, 미국은 다인종 국가라서 내복 수출이 어렵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되는 내복은 주로 교민을 상대로 판매된다.

> **국내 내복업계가 자랑으로 삼는 점이 한 가지 있다. 품질과 디자인에서 대한민국 남성 내복이 세계적 명품이라는 자부심, 남성이라면 내가 입는 내복이 명품이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요즘 국내에서는 기능성 내복이 유행이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돈은 많은데도 비싼 기능성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번들(묶음)'로 판매되는 면 내복만 찾는다. 그냥 입다 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물값이 비싼 데다, 수질이 나빠 세탁을 하면 금방 변색이 돼 세탁을 잘 하지 않는다. 날씨가 건조하고 땀이 안 나니까 오래 입을 수 있으니 통상 열 번쯤 입고 버린다.

개가죽 내복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내복을 입은 것은 삼국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주로 면이 사용되는 지금과는 달랐다. 신라나 백제보다 상대적으로 추운 고구려에서는 동물 가죽으로 내복을 만들어 입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부유한 사람이나 양반들은 솜옷을 내의처럼 입었고, 가난한 양반이나 상민들은 구피(狗皮)라고 해서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물론 대부분의 궁색한 양민들은 따로 내복이라 할 것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내복이 생산된 것은 1960년대부터로 내복 생산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국내 내복업계가 자랑으로 삼는 점이 한 가지 있다. 여성 내의류를 포함해 대부분 의류 분야에서 수입품이 명품으로 꼽히고 있지만, 남성 내복만큼은 국산이 1위를 지킨다는 점이다. 품질과 디자인에서 대한민국 남성 내복이 세계적 명품이라는 자부심, 남성이라면 내가 입는 내복이 명품이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몸도 마음도 따뜻한 '온(溫) 맵시' 캠페인 확산

건강 · 에너지 · 환경 지키는 "일석삼조"

따뜻한 온(溫)맵시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건강 지키기까지 일석삼조의 내복 입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고 있다.

동아DB



내복은 더 이상 민망패션이 아니라 겨울 필수품이다. 11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 보내기' 행사 참가자들이 내복 입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구', 이른바 공동구매는 인터넷 쇼핑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도 공동구매에 나섰다. 그냥 공동구매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溫) 공동구매'다.

11월 30일 청와대에서는 참모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내복 공동구매 행사가 열렸다. '지엄한' 인상의 청와대에서 아이 어른 내복을 쌓아놓고 왁자지껄한 분위기의 공동구매 행사가 열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 직원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내복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속사정 때문이다.

이틀간 열린 이번 내복 공동구매 행사장에는 성인, 소아, 유아용으로 나뉘어 45종류의 내복이 다양하게 갖춰졌으며, 정상가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판매됐다. 특히 현장에서 곧바로 친지나 지인들에게 배송도 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모았다. 청와대 내복 공동구매의 판매금액 가운데 10퍼센트는 판매업체의 협조를 얻어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청와대 내복 공동구매로 나도 따뜻하고 이웃도 따뜻하게 된 셈이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벌이는 내복 입기 캠페인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 보내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와 시민들이 내복을 현장에서 구입해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내복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청와대선 직원 대상 '내복 공동구매' 행사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랑의 내복 전달식'을 통해 김준목 한국자원봉사센터 중앙회장에게 5백 벌의 내복을 전달했다.

아울러 내복 입기 범국민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이날 캠페인에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새마을운동중앙회(회

장 이재창),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회장 김승제),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도 함께 참여했다. 'BYC' 협찬으로 열린 이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 가정 아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액 굿네이버스에 기부됐다.

장만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은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 온도를 섭씨 3도 낮추면 에너지 소비를 20퍼센트 정도 절감해 전국적으로 1조8천억원의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며 "따라서 내복을 입는 것은 소나무 9천2백만 그루(여의도 37배 면적)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건강 지키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내복 입기가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이번 내복 입기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2백4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국민 내복 입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으로 11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녹색생활 실천의 날(그린데이·Green Day)'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과 발맞춰 지자체들은 그린데이를 내복 입기의 날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기업에도 부는 '내복 바람'

충남 보령시는 11월 19일 매주 수요일을 녹색생활 실천의 날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내복 입기 △복사지 양면 인쇄 △사무실 쓰레기 분리수거 △종이컵 사용 안 하기 △점심시간 소등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도 매주 수요일을 녹색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해 군(郡) 차원에서 겨울 내복 입기 등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올겨울에는 경찰도 내복으로 무장한다. 먼저 강원도 내 모든 경찰이 내복을 입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1월 18일 내복 입기 생활화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도내 17개 경찰서에 보냈다. 강원경찰은 내복 입기 운동을 통해 도내 경찰청 소속 전 직원과 전·의경 대원 등 5천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20일에는 전북경찰도 전 직원이 내복 입기 생활화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의경과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내복 입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단체나 민간기업에서도 내복 입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와 이마트, 삼성홈플러스는 11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후원으로 내복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내복 입기 홍보에 나선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내복 판매는 판매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마트(성금 5백만원과 내복 5백 벌) 롯데마트(성금 3백만원과 내복 3백 벌) 등이 판매수입 중 일부를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또 롯데홈쇼핑도 12월부터 내복 할인판매와 더불어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내복 입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12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용산 KTX 역사 안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여성부 주최로 '2009 에너지 사랑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복 패션쇼와 할인판매 등이 마련된다. 이날 내복 패션쇼에는 남녀 젊은이, 어린이, 가족 그리고 사회 유명인사, 유관단체장 등이 모델로 참여하며 현장에 참석한 일반인들도 희망하면 모델로 나설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 온도를 섭씨 3도 낮추면 에너지 소비를 20퍼센트 정도 절감해 전국적으로 1조8천억원의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연예인도 미스코리아도 "내복 입으세요"







동아DB

사진 위에서부터 미스코리아 김소영(사진 맨 오른쪽)·장윤희 씨와 탤런트 남상진, 김지영 부부 그리고 가수 겸 탤런트 윤은혜(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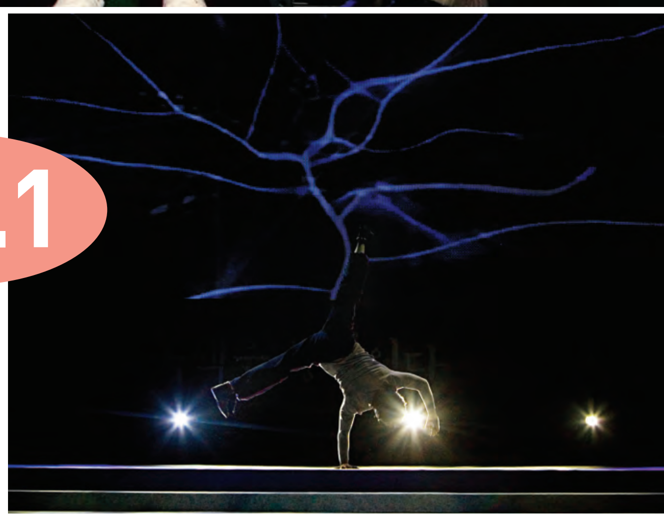
내복 입기 홍보에는 연예인과 미스코리아 등도 동참하고 있다.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윤은혜와 함께하는 에너지 사랑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내복 착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알리고 소외아동들도 돕는 사회공헌 행사다. 인터넷 사이트 그린에너지패밀리(gogef.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탤런트 남성진, 김지영 부부는 11월 1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 보내기 행사'에 판매 도우미로 참가해 내복 입기를 홍보했다. 2008년 미스코리아 서울 진 장윤희 씨와 2004년 미스코리아 진 김소영 씨도 이날 행사에서 내복 입기 홍보대사로 위촉돼 젊은 여성들에게 내복 입기를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다.



온맵시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는 온맵시 스타일로 차려입은 모델들의 가족 패션이었다.
모자, 장갑, 핸드워머, 레그워머를 포인트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옷차림을 선보였다.



온맵시 패션쇼가 진행되기 전 겉옷 같은 내복을 입은 비보이들이 내복 입기 운동을 장려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내복 입으면 스타일 무너진다?

No.1

겨울 패션 공식 일급비밀을 알려주마

겨울철 찬 바람을 막고 싶지만 무조건 두꺼운 옷을 입는다고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주최한 2009 한마음 대회 온(溫)맵시 패션쇼장에서 찬 바람을 막는 겨울 패션의 일급비밀을 알아봤다.





환경부 주최로 열린 '녹색은 생활이다 2009 한마음 대회'에 정운찬 국무총리도 참여해 겨울철 녹색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온(溫)'과 옷을 차려 입은 모양새, 여기에 스타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합쳐진 '온맵시'. 단어의 조합을 보자니 겨울철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 같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따뜻하면서도 맵시 나게 옷을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이 많다.

이에 지난 11월 24일 환경부 주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녹색은 생활이다 2009 한마음 대회'가 열렸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환경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천5백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그린스타트 운동 및 녹색생활 실천 1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 중 무엇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온맵시'를 주제로 한 패션쇼였다. 패션쇼가 진행되기 전 무대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복 입기 운동'을 적극 장려하는 비보이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빠른 비트 음악에 맞춰 그레이 컬러 상의 내복을 입은 여덟 명의 비보이들은 힙합 스타일의 의상으로 무장했을 때보다 더 날렵하고 멋진 공연을 선사해주었다. 관객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독특한 비보이들의 안무만큼이나 내복 같지 않은 내복을 입은 모습이 신기했는지 연신 환호성을 지르며 "겉옷처럼 생긴 내복이 신기하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한마음 대회 온(溫)맵시 패션쇼… 내복 입은 힙합보이 퍼포먼스도

비보이들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온맵시 패션쇼가 시작됐다. 모델들이 성큼성큼 무대 앞으로 걸어가자 무대에 걸린 커다란 화면에서 온맵시와 관련한 친절한 설명이 뒤따랐다. 무조건 두껍게 입기보다는 겹쳐 입기, '레이어드'에 포인트를 준 패션이라는 것, 특히 옷을 겹쳐 입으면 옷 사이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저장돼 보온효과가 높다는 온맵시의 장점도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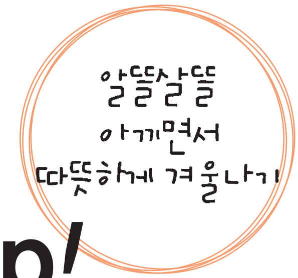
조끼, 카디건, 터틀넥 스웨터, 니트웨어 등 움직임이 좋은 여러 개의 옷을 겹쳐 입은 모델들을 살펴보니 활동성이 좋아 보였다. 특히 다양한 컬러를 멋스럽게 매칭해 칙칙한 컬러의 두꺼운 외투를 걸치는 것보다 훨씬 개성 있고 밝아 보였다.

무엇보다 다양한 겨울 소품을 이용해 단조로운 겨울 패션에 포인트를 주고 따뜻함도 유지하는 것이 온맵시 패션의 숨겨진 법칙임을 알 수 있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온맵시 패션의 포인트는 니트나 카디건 등 여러 옷을 겹쳐 입어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덧신만 신어도 체감온도 up!

실내 온도를 섭씨 1도 높이려면 에너지가 7퍼센트 더 소비된다. 그렇다고 마냥 춥게 겨울을 날 수는 없는 법.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모았다.

겨울이 춥고 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도 겨울에 가장 많다. 여름보다 약 20퍼센트 정도 많다. 최근에는 전열기 사용량의 증가로 순간 최대 전력사용량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겨울철 각 가정의 실내 온도를 살펴보면 평균 24도가 넘는다. 지나친 난방은 오히려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정도언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잠자기에 적당한 실내 온도는 섭씨 18~20도로, 이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체내의 중추신경계가 흥분하고 잠들기 힘들어진다"고 말한다. 또한 실내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에너지는 7퍼센트가 더 소비돼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온도가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천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장판 밑에 단열매트 까세요

전기요나 전기장판 밑에 단열매트를 깔면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열매트를 깔면 깔지 않았을 때보다 1년에 89.9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드럼세탁기(용량 12킬로그램 기준)를 70번 돌릴 수 있는 전기다.

전기장판의 온도는 전기 소모가 많은 '강(强)'보다는 '중(中)' 이하로 놓고 쓰는 게 좋다. 하루 5시간 전기장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중'으로 놓고 쓰면 '강'으로 쓸 때보다 연간 1백85.97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일러스트 · 이승현

'바늘구멍 황소바람' 외풍을 잡으세요

외풍은 실내 온도가 적당해도 한기를 느끼게 해 실내 온도를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모든 집에는 창틀이나 창틀과 벽 사이 등에 미세한 틈새가 있게 마련이다. 문틈이나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만 막아도 실내 온도가 2~3도는 올라간다. 열 손실을 30퍼센트 이상 줄이고 난방비의 14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은 거실과 주방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현관과 다용도실, 방문 등 바람이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문풍지나 테이프 등으로 틈을 막으면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유리창을 통한 열 손실도 만만치 않다. 창 전체를 단열재로 막아주면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 열 손실을 막아 줄 뿐 아니라 소음 제거 효과도 있다. 일반 비닐로 유리창을 덮어도 무방하지만 열수축 효과가 있는 특수필름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두꺼운 소재의 방한 커튼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조 난방기구는 창가에 놓고 사용하세요

보조 난방기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이때 보조 난방기구를 어디에 놓느

바닥에 담요·카펫 깔고 덧신을 신으세요

우리나라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문화가 발달해 있다. 따라서 실내공기가 따뜻해도 바닥이 차가워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발에서 가장 많은 체온을 뺏기게 되므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바닥에 담요나 카펫, 러그, 방석 등을 깔아 냉기를 차단하고 슬리퍼나 덧신을 신어 발을 보호하면 체온이 상승해 실내 온도를 3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러그나 카펫 아래에 단열 소재인 캠핑용 은색 시트를 매트 크기보다 작게 잘라 깔아놓으면 공기의 밀집성이 높아져 보온력도 높아진다.

또한 상의에 카디건을 덧입거나 무릎 담요를 준비해 덮으면 굳이 실내 공기까지 무리하게 덥히지 않아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다.



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크다.

창가에서 떨어진 안쪽에 놓으면 창가의 찬 공기 때문에 실내의 온도 차이가 커진다. 또한 보조 난방기구는 공기 오염을 발생시켜 자주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데워진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조 난방기구를 창가나 문가 등 냉기가 유입되는 곳에 놓으면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가 데워지면서 방 전체가 골고루 훈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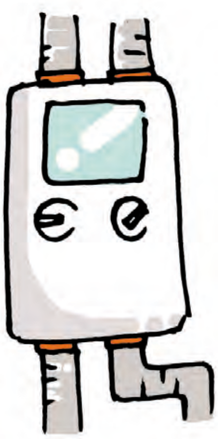
실내 온도 빨리 올리고 싶다면 가습기 트세요

외출 후 돌아와서 집이 추울 때 무작정 보일러 온도를 높이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맞춘 후 가습기를 틀어 집안의 습기를 높여준다.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바닥이 데워지면서 집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 집이 빨리 데워지는 효과가 있다. 이때 스토브를 켜놓으면 공기가 더 빨리 따뜻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개월마다 보일러 청소 하세요

보일러를 오래 쓰다 보면 내부에 이물질이 생겨 효율이 낮아진다. 6개월에 한 차례 정도 보일러를 청소하면 성능이 좋아져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약 10퍼센트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보일러와 배관에 흐르는 물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틀어두면 되므로 간단하다.



낮에는 보일러를 끄고 밤에만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난방 사용량을 늘리는 주범이다. 연료비를 아낀다며 보일러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게 연료 사용량이 더 적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온도를 확실히 높였다가 자기 전에 낮추고 새벽녘에 잠깐 켰다가 볕이 좋은 낮에는 다시 온도를 낮추는 등 필요한 만큼만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난방비 절약의 비결이다. 하루 종일 같은 온도로 켜두는 것과 최소한 월 2만원은 차이가 난다.

낮 시간 등에 집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안방 등 한 곳에서만 생활할 때에는 집안 전체 온도는 낮춰두고 필요한 공간에만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조 난방기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먼저 받으면 욕실이 훈훈해져요

옷을 다 벗었을 때 추위를 느끼지 않는 실내 온도는 22~25도다. 겨울철에 목욕할 때 욕실이 춥다고 보일러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욕실에 스토브를 켜놓아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게 좋다. 스토브는 목욕하기 직전에 반드시 끈다. 또한 목욕 10~15분 전에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욕실 문을 닫아놓으면 물이 목욕하기 적당할 정도로 식으면서 욕실이 훈훈해진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세계 주요 언론들은 개도국으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3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루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온실가스 30% 감축" 선진국들 놀랐다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진행한 국무회의의 풍경을 전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야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감축 계획을 내놨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1월 20일 '각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 발표(Nations unveil plans to rein in emission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국제 합의를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7일 202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를 평소 대비 30퍼센트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배가 됐던 한국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및 교통에 투자하고 신규 녹색산업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줌으로써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해 "에너지 집약적인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이번 감축 목표치는 정말 야심차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청와대에서 이 같은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난방 온도를 낮추고 보온 내복을 입은 채 국무회의를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11월 18일 '한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 나서(South Korea moves to cut emissions)'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지만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려 한다고 칭찬했다. 기사는 또 "한국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방향을 정하면 우리는 늘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의 말을 인용해 범국민적인 감축 노력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끼' 국무회의 등 자세히 다뤄… "세계의 모범 될 것"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4퍼센트 감축 약속을 전하며 "기후변화 부문에서 아직까지는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가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를 내세워 반대 의중을 보인 선진국권의 허를 찔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바깥 날씨는 영하에 가까웠지만 이 대통령과 내각은 국무회의 때 난방장치를 꺼놓아 탄소 배출량 감축계획에 불만인 기업들에게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몇몇 국무위원은 스웨터와 긴 내의를 착용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인디펜던트〉지도 11월 23일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 약속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대해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절대적인 감축량을 약속한 것으로 굉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탄력근로제 등 '퍼플 잡' 확대

자녀 양육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을까? 여성부는 여성들의 이런 바람을 담아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퍼플 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엔티텍은 최근 탈의실 바닥에 전기패널을 깔고 깔끔하게 정리해 여성 휴게실을 만들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세탁기 부품 제조업체인 (주)엔티텍은 직원의 76퍼센트가 여성이지만 여성 휴게실이 없었다. 얼마 전 여성 탈의실로 쓰던 공간에 전기패널을 설치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여성전용 휴게실을 만들었다. 엔티텍 관리팀 하혜옥 과장은 "추운 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부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경남새일본부)가 함께 추진한 여성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의 성과가 운데 하나다. 여성부와 경남새일본부는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경남 소재 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0만원에서 3백만원의 여성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했다. 여성 전용 화장실과 휴게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시설을 개선한 것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여성 친화 컨설팅도 실시했다.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자리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현대산기주식회사는 여성 친화 컨설팅 후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던 것을 여성 전용으로 바꾸고 남성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5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롭게 섞이면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퍼플 잡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산기주식회사 이수태 회장은 "여성 친화 컨설팅을 하면서 여성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경남새일본부 정성희 본부장은 "지원금의 액수가 크진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고 중소기업 스스로 여성 고용 및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일터와 가정 만들기'를 위해 '퍼플 잡(Purple Job)'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9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 구직자 8백11명 가운데 46퍼센트가 탄력근무제 시행 기업을 가장 선호했다. 또 여성부가 지난해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욕구조사'에서도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원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엔 컨설팅 · 세제 등 지원키로

여성부는 이렇게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면서도 직업의 안정성과 커리어가 유지되는 퍼플 잡으로 병원 의사 · 간호사 등 24시간 근무 업무, 전일제 근무자 1명의 업무를 2명이 나눠 일할 수 있는 제조 · 유통 · 금융업, 번역 · 통역, 속기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 활용 분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휴일근무 또는 야간 개장이 필요한 업무를 들었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경우 3교대로 인한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 2교대 근무로 고정하고 야간 근무 전담자를 별도로 채용했다. 또 국민은행은 올해 8월부터 1주 2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는 정상근무 대비 57퍼센트를 지급하고 평가는 전일제 근무자와 구분하되 복지후생, 성과급, 자기계발비 등은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다.

여성부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한 근로형태가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나아가 퍼플 잡의 남녀 간 최저 활용 비율을 제시하는 등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퍼플 잡에 남녀가 고루 참여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퍼플 잡이란?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되 직업의 안정성 및 커리어는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정규직 일자리.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하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동안은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는 줄어들지만, 그 이외 직업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더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 풀타임 근무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퍼플 잡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첫걸음"

'퍼플 잡' 이란 용어와 개념을 장관께서 직접 만든 계기가 있습니까.

장관 취임 직후인 10월 1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임을 듣고, 양질의 안정된 자발적 단시간 근로직을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롭게 섞이면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퍼플 잡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플 잡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와 별도로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퍼플 잡은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통해 가정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일자리를 말하는데, 근무 시간에 따라 보수는 줄어들지만 그 이외 직업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직종입니다. 즉,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하는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시 풀타임 근무자로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경택 기자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퍼플 잡은 '정규직으로서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퍼플 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해야 할 텐데요.

기업이 퍼플 잡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제, 웹 기반 근무 시스템 개발, 직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인사 관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위한 인사 · 노무 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퍼플 잡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생기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유연근무제 등 퍼플 잡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연근무제가 직원 만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경영층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사회에서 퍼플 잡을 실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클 텐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퍼플 잡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여성부부터 퍼플 잡을 운영해볼 생각으로 현재 1차 적용대상 업무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인력 운용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나, 취업했어요!"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성공사례집 발간

노동부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13명의 경험담을 모은 사례집을 펴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층의 구직을 위해 노동부가 올 초부터 제공하고 있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13인의 사례를 모은 〈내 일을 찾으니 來日이 보여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홈페이지에는 지원 방법과 취업성공 사례 등이 실려 있다.

#1 남편의 부도와 연이은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이 직장암 수술을 받아 장애 5등급을 받게 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주부 김모(48) 씨. 고교 졸업 후 주경야독으로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병원 근무 경험도 있지만 병원 재취업은 여의치 않았다. 병원에서는 젊고 심야근무가 가능한 직원을 원한 반면, 김 씨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간병하느라 야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노동부 자활사업. 당장 노동부 취업 대상자로 등록했고 성취 프로그램과 자활 취업촉진사업에 참여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집 근처 어린이집의 간호조무사 자리도 소개받았다. 취업 프로그램에서 얻은 자신감과 고용센터의 적극적 도움으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2 당뇨, 고혈압, 비뇨기 이상 등으로 10년 이상 고생해온 정모(65) 씨. 아내는 뇌경색으로, 큰아들은 정신지체로 5급 장애 판정을 받은 차상위계층 가정의 가장이다. 가족들 병 수발에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지만 예순이 넘은 고령에 특별한 기술도 없어 일을 얻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진로상담과정과 취업희망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고용지원센터 주선으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에 지원했다. 4명의 경쟁자 중 최고령이라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취업 프로그램에서 받은 2개월 간의 교육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면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당당히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다. 지금은 둘째 아들도 정 씨의 권고로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다.

#3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인 배모(45) 씨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지체장애 2급인 아내를 부양해왔던 당당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4년 전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긴 투병생활에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6개월간의 수술과 항암치료 끝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 지체장애에 40대 중반이란 나이, 게다가 배운 것도 없는 형편인지라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다.

그때 취업성공 패키지를 알게 되었고 1 대 1 상담을 통해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를 얻을 수 있었다. 센터 담당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배 씨 대신 인터넷에서 취업정보를 찾아주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배 씨는 소규모 생산업체에 재취업해 취업성공수당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4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뒤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살다 이혼을 결심한 전모(39) 씨. 한부모가정으로 차상위계층에 등록되었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취업성공 패키지를 알게 되었다. 혼자 찾아가기 어려웠던 사업장도 담당자가 함께 방문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센터의 도움을 얻어 구직에 나서기로 했다.

마침 센터로부터 경력단절 취업취약계층의 여성과 장애우를 모집하는 의류생산업체를 소개받았다. 기술이 없어 걱정했지만 맞춤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상담자의 말에 힘을 얻어 업체의 문을 두드렸고, 봉제기술도 새롭게 배웠다. 지금은 3개월의 수습기간도 끝내고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정경택 기자

취업성공 패키지는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서울 도화동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일자리 안내 게시판.

이들은 노동부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험담을 모아 최근 발간한 〈내 일을 찾으니 來日이 보여요〉에 소개된 성공사례다. 사례집에는 이 외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 이혼이나 남편의 부도, 고령, 신체장애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취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구직에 성공한 13명의 수필이 실렸다.

이렇듯 '취업성공 패키지'는 지난 1년 동안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어 주었다. 노동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 사업은 18세에서 64세 이하 저소득층 서민(4인 가족 기준 1백99만원 미만 가구)을 대상으로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11월 15일 현재 9천3백46명이 참가하여 5천6백93명이 수료했고, 그중 3천1백49명이 취업에 성공해 55.3퍼센트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성공수당 지급도

프로그램은 3단계로 진행된다. 취업 희망자가 전문 상담원과의 심층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진단하여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첫 단계. 2단계에서는 개인의 취업의욕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취업, 직장 체험 등 교육이 진행된다.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3단계로 본격적인 취업알선 작업이 이뤄진다. 지원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터를 주선하는 것은 물론 담당자가 지원자의 면접 시 직접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도우미 역할을 해줌으로써 지원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류해종 사무관은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은 한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재실직률이 높았던 반면, 이 사업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취업을 돕는다"고 말한다. 또한 "지원자 개개인을 일대일로 상담하고 상담에서 교육과 직업 알선까지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급여지급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의 조건으로 반드시 실직이나 실업상태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 개념에는 '전직 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소득활동이 프로그램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 수급자이거나 '비취업' 대상자인 경우,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참여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1개월 근속 시 60만원, 3개월 근속 시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동봉해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노동부 Tel **1588-1919**
취업성공 패키지 **molab.go.kr/policyinfo/bizpack**


4대강 살리기
제 32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오늘은 그녀와 만난 지 꼭 1백 일째 되는 날. 강변에서 근사한 이벤트를 벌이려고 준비했어요.
강변은 학교에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니까요.
한강시민공원
빵!
부웅
강변으로 가는 길이 멀지는 않은데 너무 복잡하네요.
좀 민망하군요. 이래서 남자들이 기를 쓰고 차를 사려 하나 봐요.
빨리 지나가지...
다행히 친구 녀석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놨네요.
오느라 너무 고생했지? 오는 길이 그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
응! 완전 실망이야!
흥!
!
그러니까 1천 일 되는 날 제대로 다시 해 줘!
내가 짠 거야.
여자 친구 말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도시에서 강가에 접근해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군요.
오늘 같은 이벤트는 1천 일 기념일 때 했어야지~
아항!
오늘 저는 그녀에게 또 다른 9백 일을 선물 받았습니다. 1천 일 기념일 때면 오는 길도, 이 강변도 더욱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뀌어 있겠죠?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하루 만에 해결하는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 · 비용도 30만원 이상 절감

얼마 전 한 68세 할머니가 9백5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돼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안모(68) 할머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백50번이나 도전한 끝에 11월 14일 드디어 합격했다.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에 들인 비용만 5백만원 이상. 생필품 판매차량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했던 안 할머니는 2005년 4월 13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처음 도전한 이후 4년 반가량 낙방의 고배를 마셔왔다.

운전면허가 이렇게 국민 경제활동에 필수요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2백80만명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이 중 1백30만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동안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운전전문학원은 7단계→5단계 축소… 10일 정도 소요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중순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 취득 과정이 지금의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된다.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은 현재의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며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개선안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등 4가지 개선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돼 내년 2월 중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제처 행정법제국 최혜경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이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든다"며 "운전면허 취득 경비도 크게 줄어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현재의 80만~90만원보다 3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도로주행시험이 폐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내용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
취득 절차	(7단계→3단계)	(7단계→5단계)
적성검사	현행 유지(1단계)	현행 유지(1단계)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1시간(무료) 강의·시청각교육→시청각교육	면허시험장과 같음(2단계)
학과시험	50문항→40문항(2단계)	
기능교육	3시간→폐지	수동: 20시간→15시간 자동: 15시간→12시간(3단계)
기능시험	15문항→11문항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	면허시험장과 같음
도로주행연습	10시간→폐지	15시간→10시간(4단계)
도로주행시험	39항목→35항목(3단계)	면허시험장과 같음(5단계)



동아DB

신인상·상금왕·다승왕… 신지애의 위대한 도전

"잘했어, 괜찮아… 내년엔 최고 될 거야"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눈만 못 찍었다고 해야 할까. 신지애(21·미래에셋)는 11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터니안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아쉽게 공동 8위에 머무르며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에서 라이벌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159점-160점으로 딱 1점 차의 역전을 허용했다.

품 안에 들어왔던 올해의 선수상 꿈을 날린 신지애는 속이 상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눈물까지 쏟았다. 골프 때문에 울어본 것은 중1 때인 2001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31년 만에 올해의 선수상, 신인상, 상금왕을 석권하려던 야망도 깨졌다.

대기록에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어도 독주 끝에 평생 한 번뿐인 신인상의 영광을 안았다. 1백8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받아 박세리, 김미현 등 존경하던 언니 프로들도 못했던 상금왕을 한국인 최초로 차지했다. 시즌 3승으로 오초아와 다승 공동 1위를 지켰다.

3관왕의 영예를 안은 신지애는

"올해의 선수상을 놓쳐 속상한 게 사실이지만 올해는 환상적이었다. 당초 생각했던 1승과 신인상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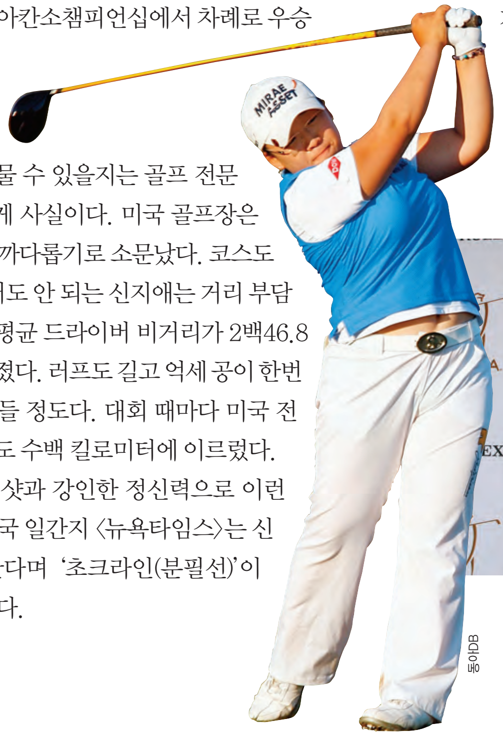
신지애는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별명도 '미소 천사'다. 이런 모습에서 힘겨웠던 어린 시절의 그늘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박세리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한 신지애는 중3 때인 2003년 11월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신지애는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어린 동생들을 간호하느라 병실에서 간이침대 생활을 하며 골프 훈련을 하는 고단한 생활을 1년가량 지속했다. 전남 영광군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아버지의 수입은 월 60만원에 불과했다. 여관 숙박비를 아끼려고 새벽 2시에 골프대회 장소로 떠났고 주차장에서 식어빠진 김밥으로 허기를 달랬다.

정교한 샷 · 강인한 정신력으로 승부… '초크라인' 애칭 얻어

고달픈 나날이었지만 신지애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골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한눈 팔 여유는 없었다. 중학교 때만 해도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신지애는 지독한 연습을 통해 고1 때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했다. 그 후 주니어대회 우승을 휩쓸고 대표팀에도 뽑혔다. 고3 때인 2006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하고 국내 프로무대에 뛰어들어 3년 연속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에는 미국 LPGA투어에서 비회원으로 사상 첫 3승을 거두며 준비된 스타로서의 자질을 과시했다.

신지애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올해 LPGA투어에 정식 데뷔했지만 첫 대회였던 지난 2월 SBS오픈에서 예선 탈락의 쓴잔을 들이켰다. 당시 그는 "보약 같은 경험이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로 알겠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호된 신고식 뒤 신지애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 3월 HSBC챔피언스에서 첫 승을 거둔 데 이어 6월 웨그먼스 LPGA, 9월 P&G뷰티 NW 아칸소챔피언십에서 차례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동아DB

신지애가 국내에서는 골프 지존으로 통했지만 미국 LPGA투어의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지는 골프 전문가들조차도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 골프장은 낯선 데다 대부분 한국보다 까다롭기로 소문났다. 코스도 더 길어 키가 1백56센티미터도 안 되는 신지애는 거리 부담에 시달렸다. 올 시즌 그의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가 2백46.8야드로 하위권인 98위로 처졌다. 러프도 길고 억세 공이 한번 빠지기라도 하면 찾기도 힘들 정도다. 대회 때마다 미국 전역을 돌아 차량 이동거리만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신지애는 정교한 샷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런 핸디캡을 극복해나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신지애의 샷이 똑바로만 나간다며 '초크라인(분필선)'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비거리 열세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우드 샷이 강해진 것도 소득이었다. 신지애는 드라이버와 3, 5, 7번 우드, 23도 하이브리드를 넣고 다니며 코스를 공략해나갔다.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미국 진출 후 언어문제로 고생을 한다. 신지애는 비록 영어는 서툴러도 다른 해외 선수들과 어울리기를 즐겼다. '콩글리시'가 섞이기도 하지만 영어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미국 LPGA투어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들은 신지애의 이런 대처를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신지애는 최근 신인상 수상식 때 드레스 차림으로 미리 준비해온 장문의 영어 연설문을 낭독해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철저하게 현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도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가정의 안정을 통해 골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되찾았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신지애의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지만 2007년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연을 맺은 새어머니와는 틈날 때 여행도 같이 다닐 만큼 가까워졌다. 신지애가 병 수발을 했던 여동생은 어느덧 고교 졸업반이 돼 서울대 물리학부 수시모집에 지원해 12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신지애는 올해 골프대회 출전 상금이 27억원 이상, 스폰서 수입을 합치면 연간 소득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경을 이겨낸 영향인 듯 그는 선행에도 관심이 많다. 거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쾌척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나 복지관 등에 기증도 자주 한다. "내가 도움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아요. 도움 릴레이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지 않을까요?"

신지애는 올해의 선수상을 놓친 뒤 전화 통화에서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안주할 수 있었는데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제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다. 언젠가 남은 용의 눈마저 채워 넣어 하늘 높이 날아오를 그의 모습이 기대된다. G

글 · 김종석(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동아DB

11월 21일(한국시간) 열린 LPGA투어 2009시즌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신지애(오른쪽)와 로레나 오초아.

〈직지심체요절〉 발견한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

“병인양요 연구할 시간 1년만 허락된다면 감사하겠어요”

13년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3천만 종이 넘는 장서를 뒤져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낸 박병선 박사. 최근 병인양요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모국을 들른 그에게 암이라는 병마가 찾아왔다. 그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오늘도 안 됩니까(Aujourd’hui, on ne peut pas)?” 1980년 봄, 프랑스 파리 리슐리외가(街)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년처럼 머리칼을 짧게 친 52세의 한국 여성이 또박또박 물었다. 도서관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여성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그는 몇 달 전까지 이 도서관에 근무하던 재불(在佛) 서지학자 박병선(81) 씨였다. 박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1955년 홀로 프랑스에 건너갔다. 소르본 대학과 프랑스 고등교육원에서 각각 역사학과 종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13년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면서 3천만 종이 넘는 장서를 뒤져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과 외규장각 도서 2백97권을 찾아내 주불 한국대사관에 알렸다.



동아DB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한 지 13년 만에 찾아낸 〈직지심체요절〉이다.

프랑스 상사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박 씨는 뜻을 꺾는 대신 사표를 냈다. 이후 매일 도서관에 찾아가 ‘개인’ 자격으로 외규장각 도서 열람을 신청했다. 옛 동료들의 냉대를 견디며 매일 “오늘도 안 됩니까?”라는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 달 만에 간신히 열람 허가가 떨어졌다.

“6·25전쟁 직후 프랑스에 건너갔어요.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병인양요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애초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한 것도 외규장각 도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프랑스 국립도서관 근무하며 〈직지심체요절〉 찾아내

지난 10월 30일 수원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에서 만난 박 씨는 “이후 10년 넘게 매일 도서관에 가서 외규장각 도서의 목차를 베끼고 내용을 요약했다”며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책을 일찍 반환하라고 할까봐 밥도 안 먹었다”고 했다.

박 씨는 지금 암 투병 중이다. 병인양요에 대한 한국 사료를 모으러 지난 9월 서울에 날아왔다가 격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 의료진이 직장암 4기를 선고했다. 그는 무너지거나 흐트러지는 대신 또렷하게 말했다.

“내 연구를 정리하려면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 1년만 주어진다면 하느님께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는 인터뷰를 세 번 거절했다. “아픈 걸 보여주는 게 싫다”고 했다. 간병인이 그런 뜻을 전하며 병실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흰 시트에 놓인 노인의 야윈 발이 보였다. 네 번째 찾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을 열었다.

“6·25전쟁 직후(1955년) 프랑스에 건너갔어요.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병인양요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애초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한 것도 외규장각 도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프랑스 함대가 가져간 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풍문을 들었거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도서관에 근무하던 시절, 박 씨는 틈만 나면 서고를 뒤졌다. 서고를 나설 때면 먼지 때문에 손과 콧속이 까맸다. 그는 단순히 〈직지심체요절〉을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이 책이 1455년에

나온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빠른 금속활자본임을 증명한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이건 우리 불경이고, 나아가 금속활자본이 맞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감(感)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파리의 인쇄소와 신문사에서 금속활자 주형을 얻어다 집에서 직접 찍어봤다. 납 활자를 만들어 찍어보느라 세 번이나 집에 불을 낼 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불교의 게송(偈頌 ·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을 적은 오래된 종이 위에서 미세한 금속 부스러기를 찾아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그만둔 뒤에는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며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10권 넘는 학술서를 썼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평생 내 일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무 에고이스트(이기주의자)라 그랬나 봐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를 찾아내는 작업도 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租界 ·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이와 관련된 사료가 굉장히 많다"며 "우리 세대가 죽고 그 모든 사료가 흩어지기 전에 다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모아 총 다섯 권짜리 책을 낼 계획이었지만 1권이 나온 뒤 정부의 지원이 끊겨 중단했다.



동아DB

박병선 박사는 암 투병 중에도 한국 역사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그는 프랑스 공무원 신분으로 한국 문화재를 찾아냈다. 이후 프랑스 공무원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며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 지인들은 "평생 프랑스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돈이 안 되는 연구를 계속한 분이라 재산이 없다"고 발을 굴렀다.

직장암 투병 중에도 병인양요 연구 열정 꺼지지 않아

이런 말이 귀에 들어가면 그는 크게 화를 냈다. 인터뷰를 여러 번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병'보다는 '국가의 일'을 얘기하고 싶어 했다. 집필 중인 역사서 얘기가 나오면 병상에서도 신이 나서 몸을 들썩거렸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된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밝힌 책이에요. 당시의 일기나 편지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온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직지심체요절>을 찾아낸 것도 외규장각 도서를 연구한 것도 다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연구해서 제대로 알리는 일이 얼마나 짜릿한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보도가 나간 뒤 문화재청과 삼성화재, 신한은행, 한독약품, 현대·기아자동차 등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 성금을 전달했다. 청주시와 독자들도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과 박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병실에 찾아왔다. 박 씨의 치료비와 맞먹는 금액이 모였다.

27세에 한국을 떠난 박 씨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로 "기운을 차리고 파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프랑스 음식을 먹는 것, 병인양요에 대한 책을 마치는 것"을 꼽았다. 그러나 병인양요에 대한 책을 출판해줄 곳도 당장 없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규장각 도서를 펼쳐놓고 있는 박 씨를 보고 '파란 책에 파묻힌 여자(la femme cachee derrie relelivrebleu)'라고 했다. 외규장각 도서 표지가 파란색이었다. G

글 · 변희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피스프렌드 제공

탄자니아 오지 레세카타타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황학주 씨. 그는 이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예술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스와힐리어 문예지 만든 피스프렌드 대표 황학주 시인

"아프리카어 살리고 한국문화 소개도 하고"

아프리카 대상 민간구호단체인 피스프렌드가 탄자니아 작가협회와 함께 스와힐리어 문예지를 창간했다. 피스프렌드 대표를 맡고 있는 황학주 시인을 만나 멀고 먼 아프리카를 향한 순정한 사랑과 작은 NGO의 '맞춤 구호' 활동에 대해 들었다.

"구호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자립'입니다. 살기 힘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구호 아닐까요."

이젠 한국 사회에서도 나눔의 정신이 적극 독려되고 널리 칭찬받는다. 아프리카에 대한 구호활동도 낯설지 않다. 초창기 제기됐던 '굶는 아이들이야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프리카까지'라는 거부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불식됐다. 연예인들의 난민 구호활동이 많아지고 빈곤국 아동결연 캠페인이 늘어난 때문이다.



피스프렌드의 후원으로 만든 아프리카 문예지 〈라피키 와 파시히〉는 동아프리카 고유어인 스와힐리어로 만든 최초의 문예지다.

그렇기는 해도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문예지를 창간한다는 아이디어는 독특하다. 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민간 구호단체 피스프렌드를 이끌고 있는 황학주(55) 씨다. 등단 22년차 시인인 황 씨는 "아프리카 고유어인 스와힐리어 문예지 발간은 15년 전 아프리카와 처음 인연을 맺고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펴면서부터 오랫동안 다듬어온 꿈이었다"고 말했다.

"봉사단 일원으로 3년간 케냐에 머물면서 만난 현지 시인과 소설가들은 고유어로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모국어로 작품을 쓰지 못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황 씨가 발행인을 맡고 탄자니아 작가협회가 편집 책임을 맡은 스와힐리어 문예지 〈라피키 와 파시히〉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들어진 문예지다. 이번 창간호는 2천 부가 발행돼 아프리카 각국 도서관과 작가들에게 배포됐다.

동아프리카에서 주로 쓰는 고유어인 스와힐리어는 탄자니아에서만 제1 공용어일 뿐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문인들은 스와힐리어가 사라지는 언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 씨는 스와힐리어 문예지를 창간하면서 "사라져가는 아프리카 고유어를 지키고 한국문학도 아프리카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예지에는 스와힐리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현대 아프리카 시인 20명과 소설가 4명의 작품이 스와힐리어로 수록됐고 황동규, 이성복, 김선우 시인 등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돼 실렸다. 내년 봄 출간될 2호에는 김연수, 김숨, 김애란 등의 소설이 스와힐리어로 번역돼 아프리카 젊은 작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실릴 예정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보다 책을 함께 만드는 게 훨씬 복잡하고 어렵지요.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많은 빵을 보내는 게 낫지 않으냐는 시선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대체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인사들이라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황 씨는 1993년 케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그는 여성 할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봉사활동을 갔던 마을에서 귀한 손님이라는 이유로 성인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황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프리카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1994년 말 다시 아프리카를 찾았다. 멀리 킬리만자로 산맥이 보이고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들로 숲을 이룬 낮은 구릉이 첩첩으로 펼쳐지는 케냐의 시골 마을 카지아도에 학교를 짓고 3년간 교장 선생님으로 지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본격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2004년 구호단체 피스프렌드를 설립했다. 올해 시작한 문예지 창간 외에도 아프리카 여성의 할례 종식운동, 탄자니아 레세카타타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에이즈 고아 급식 활동, 세렌게티 자연보호기금 모금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설가 김훈, 이제하, 시인 이문재 등 문단 작가들과 사진작가 김중만, 배병우, 연극인 김지숙, 가수 이상은 등 문화예술인들이 그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피스프렌드가 추구하는 구호활동은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도움"이라고 말하는 황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구호'를 펴는 엔지오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아프리카에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호활동은 근본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있고 돈이 많아서 너를 도와준다'는 식의 구호는 그들을 제대로 돕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 후에 '난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 씨는 내년 2월에 그동안 추진해온 탄자니아 레세카타타 마을 예술학교 건립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아프리카로 떠날 계획이다. 함께 봉사활동을 떠날 희망자들은 피스프렌드 홈페이지(peacefriend.or.kr)를 통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내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순수함을 찾아내는 행복도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구호활동은 근본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펼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 후에 '난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영철 기자

아프리카 구호단체 피스프렌드의 대표이자 시인인 황학주 씨는 "봉사를 통해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에서 봉사 인생 시작하는 성악가 김청자

"예술가로 누린 인생, 봉사로 다시 살아요"

김청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내년 봄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난다. 2005년 안식년 때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만난 헐벗은 아이들을 잊지 못해 봉사활동을 시작한 김 교수는 좀 더 가까이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말라위에 정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제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예술가로서 제 꿈을 차고 넘치게 이뤘으니, 이제는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요."

성악 분야의 해외 진출 개척자로 꼽히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65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가 아프리카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그는 40년 음악 인생과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내년 봄 아프리카 말라위로 터전을 옮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9천여 명의 고아를 돌보는 현지 가톨릭 공동체에 합류해 말라위 아이들을 위한 봉사로 인생 2막을 열 예정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예술가로 누린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제는 그 감사함을 되돌려줄 때"라며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아프리카로 가려 한다"고 말한다.

그가 아프리카 봉사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안식년 때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였다. 노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유럽, 미국, 아프리카 3대륙을 여행한 그는 아프리카의 매력에 푹 빠졌고 한국에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돕기에 나섰다.

"잠비아의 헐벗은 어린이들이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기아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최소한의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이곳이라면 제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때부터 매년 두 차례씩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가톨릭 신자다 보니 선교 현장을 방문해 크고 작은 숙제를 받아왔죠. 우물을 파고, 병상을 마련하고,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했어요."



김성훈

김청자 교수는 11월 21일 예술의전당에서 40년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퇴임 무대를 가졌다.

김 교수는 2006년부터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1억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모아 아프리카로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9차례 아프리카에 다녀온 김 교수는 내년 봄 아예 아프리카 말라위에 터전을 잡는다. 지금 사는 집을 내놓은 그는 집을 처분한 돈 2억원 가량을 아프리카와 말라위를 위해 기부할 생각이다.

"말라위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생 보낼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와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떠날 결심을 했어요. 멀리서 살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곁에서 가까이 살아야겠다 싶었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 특별히 말라위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어느 곳보다 도움이 절실한 곳이기 때문이다.

"후원자들을 이 고귀한 나눔에 동참시키는 것도 제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아프리카를 다녀왔던 삶이 이제는 거꾸로 될 것 같아요. 후원자도 모집할 겸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나와 지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말라위는 내전이 없는데도 에이즈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1천4백만 인구에 고아가 1백만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성품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곳이기도 하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렸으니까요."

말라위에 만들 공동체의 이름이 '루스빌로'다. '희망'이라는 뜻의 말라위 원주민어. 학교를 짓고 교사들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마련하고 우물을 파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후원자를 모집하는 한편, 아이들도 직접 가르칠 계획이다.

"음악과 춤이 그곳 사람들 생활에 자연스레 녹아 있어요. 음악적으로 기여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그곳에서 제2의 김청자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 그는 고교 졸업 후 독일로 유학 가 아우구스부르크의 레오폴드 모차르트음대, 오스트리아의 빈국립음대에서 공부한 뒤 한국 성악가 최초로 유럽 무대에 데뷔해 25년



김청자

김청자 교수는 2005년부터 아프리카를 9차례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왔다.

간 오페라 본고장인 유럽에서 활약한 '원조' 해외파 성악가다.

"사실 가정환경이 풍족하지 않아서 저 혼자서는 음악가가 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어릴 때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 신부님 덕분에 성당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을 알게 됐고, 유학을 꿈꾸게 됐어요. 독일 유학도 신부님, 수녀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가게 됐고요."

유학 시절 수녀님들의 기숙사에 머물며 성악 공부에 매진한 그는 1970년대 스위스 베른시립오페라단의 전속단원으로 활약했다. 그 후 뒤셀도르프 오페라단에서 '일 트로바토레' '카르멘' '살로메' 등의 오페라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한국 성악가의 명성을 드높였다. 귀국 후 1994년부터는 15년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한 달 1천 달러로 수십 명의 생명 살릴 수 있어"

그는 "음악가로서의 꿈을 다 이뤘으니 이제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며 "육체의 고향이 한국, 정신의 고향이 독일이라면, 이제 제 영혼의 고향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한 달에 1천 달러면 그쪽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후원자들을 이 고귀한 나눔에 동참시키는 것도 제가 할 일 가운데 하나다. 한국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아프리카를 다녀왔던 삶이 이제는 거꾸로 될 것 같다. 후원자도 모집할 겸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나와 지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한다.

독일 베를린음대에서 테너 색소폰을 전공한 아들(다니엘 글라첼)을 두고 있는 그는 말라위에는 혼자 갈 예정이다. 뒤셀도르프에서 활동하던 1980년대 초반 공연을 위해 영국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독일인과 사랑에 빠진 김 교수는 그와 결혼해 다니엘을 얻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퇴임 무대에 올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제자들로 구성된 크누아(KNUA)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4악장의 독창을 불러 성악가로서 마지막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 전 김 교수는 "40년 음악 인생을 이 무대를 통해 마무리한다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인 말러의 음악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특별한 무대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휘자 정치용 씨의 안내로 무대에 등장한 김 교수는 완숙한 기량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용한 알토 독창을 열창해 관객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고 홀에서는 김 교수를 둘러싸고 제자들이 사랑을 주제로 한 성가곡을 불러주어 뜨거운 사제애를 느끼게 했다. G

글 · 현윤경(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조영철 기자

사진작가이기도 한 박시호 이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들른 직원이나 손님의 사진을 찍어준다. 배경의 사진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행복 전도사 박시호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이사장

"매일 아침 7시 행복을 쏩니다"

박시호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이사장은 7년째 매일 아침 5백명에게 '행복편지'를 보낸다. 그의 편지는 전염성이 강해 지금은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 전도사가 된 그의 행복한 삶을 들여다봤다.

"스물아홉 살 딸이 아버지의 생일에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훔쳐본다. 퀵서비스 배달원인 아버지의 휴대전화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만 가고 싶다.' 울컥하는 눈물을 참으며 딸은 결심한다. '마구 웃으며 살겠다. 오늘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죽고 싶은 거, 힘든 거, 서러운 거 꾹꾹 참아가며 살고 있는데….'"

'박시호의 행복편지' 가운데 한 구절이다. 박시호(56)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이사장은 매일 아침 5백명에게 '행복편지'를 보낸다. 2003년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편지를 띄우고 있다. 정확히 아침 7시에 보낸다.

그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나마 제 편지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다"며 "컴퓨터를 켜놓고 편지 오기를 기다린다는 사람들도 있어 시간을 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편지는 읽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 시름을 잊고 행복감에 젖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7년째 매일 아침 5백명에게 '행복편지'

행복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 그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새벽 공기로 마음을 맑게 한 뒤 컴퓨터를 켜고 편지를 쓴다. 평소 글감이 떠오를 때마다 써놓은 글 가운데 그 날의 계절, 날씨, 뉴스에 맞는 것을 골라 다듬고, 사진작가의 안목으로 사진과 음악을 더해 편지의 맛을 살린다. 실제로 그는 꽃 전문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사진과 음악을 고를 때는 아내(화가), 딸(광고 디자이너), 아들(인테리어 전문가)의 도움도 받는다. 박시호의 행복편지는 딱 5백명에게만 전달된다.

"왜 5백명이냐고요? 구글 e메일을 쓰는데 무료로 한 번에 보

낼 수 있는 게 5백 통이거든요.” 이 때문에 편지를 받다 ‘짤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답장이나 이벤트 참여 정도로 판단해 행복편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 독자를 빼고, 새로운 사람을 넣는다. 행복편지는 행복을 주고받는 편지인 만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행복편지를 받는 사람은 5백명이지만, 읽는 사람은 5천명이 넘는다. 행복편지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 직원들에게 포워딩해주기 때문이다.

“책 판매 수익금과 기고나 강연을 하고 받은 돈 등을 합쳐 지난해 1천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는데, 올해는 강연과 기고 요청이 많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경영철학도 ‘행복경영’이다. 그는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이사장으로 올 때도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영등포역 맞은편에 있는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사무실은 갤러리에 가깝다. 사무실은 물론이고, 복도와 화장실까지 1백50여 개의 꽃 사진 작품이 전시돼 있고, 복도와 화장실에서는 사람의 기척이 있을 때마다 음악이 흐른다.

그는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과 손님의 사진을 찍어준다. 아예 사무실에다 사진관에서나 볼 수 있는 스튜디오 장비까지 갖춰두었다. 방에 들른 직원이나 손님을 의자에 앉힌 뒤 카메라를 들고 갖가지 포즈와 표정을 요구한다. “20분 정도 사진을 찍으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에 대해 알게 되고 친근감도 생깁니다.”

직원이나 고객 쪽에서 보면 다른 어느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이다. 며칠 뒤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 5백여 장을 담은 시디가 배달된다. 그는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2008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DB

박시호 이사장은 행복편지를 모아 낸 책의 인세와 강연, 기고 수입을 모아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한국타이어 직원으로 근무할 때 그 회사 사장으로 온 나웅배 씨를 만난 뒤 그의 보좌관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오래 일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설립위원을 거쳐 구제금융 시절 조사부장을 맡아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을 가리는 일을 했다. 그는 “한때 정치를 할 생각도 했었으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접었다”고 말했다. 사진에 관심을 가져 꽃 전문 사진작가가 되고, 행복편지를 보내 ‘행복 전도사’가 된 계기도 흥미롭다.

“예금보험공사로 왔더니 만나자는 사람이 딱 끊겼어요. 흔히 하는 말로 ‘물먹었다’고 보는 거지요. 퇴근 뒤에 바로 집으로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곧 한계를 느껴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는 친구인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 씨에게 사진을 배웠다고 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지는 게 꿈입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낸 행복편지 가운데 반응이 좋은 것들을 골라 ‘행복편지’란 제목의 책으로 펴내고 있다. 편지 수신자들에게 “책이 필요하면 인쇄비와 발송비로 한 권당 5천 원씩 내라”고 해서 모인 돈만큼 발행하는데, 여러 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낼 때마다 2만 권을 넘었다.

“사람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해져”

그는 최근 ‘파란 행복’이란 부제를 단 세 번째 행복편지 책 편집을 마감했다. 3백30쪽 분량으로 11월 18일 발행된다. 주문이 2만7천 권이나 들어왔다. 선물용으로 수십 권씩 주문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3만 권을 발행해, 3천 권은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낼 생각이다. “책 판매 수익금과 기고나 강연을 하고 받은 돈 등을 합쳐 지난해 1천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는데, 올해는 강연과 기고 요청이 많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담은 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과 친구 등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댄다.

박 이사장의 행복편지는 신종플루보다도 전염성이 강하다. 행복편지에 감명받아 자신도 ‘행복을 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 사장은 행복편지 수신자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연극 연출자는 공연에 초대한다. 행복편지가 ‘자가 증식’을 해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 사업 할 만하죠?” G

글 · 김재섭(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청주여자교도소 '책, 함께 읽자' 캠페인

"한 번밖에 못 읽는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11월 24일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시인 정호승, 성우 양지운, 배우 노현희 씨 등이 참석해 '책, 함께 읽자' 문학 행사가 열렸다. 법무부가 재소자들에게 재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올해 6번째로 개최한 문학 행사다.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의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정호승 시 '연어' 중에서)

"제시에도 있습니다만, 연어는 모천회귀를 하죠.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셨으니 꼭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장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미에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정말 장미일까요? 그 가시가 고통의 가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11월 24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 강당에서 정호승 시인이 '책, 함께 읽자' 문학 행사에 참여해 2백여 명의 여자 재소자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넸다. 문학 방송 형식으로 시와 산문 낭송, 재소자 참여, 사인회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회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된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재소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성우 양지운 씨의 사회로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배우 노현희, 정인숙 씨 등이 함께 출연해 문학과 상처를 소재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행사는 이태희 교정본부장이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낭독하며 시작됐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11월 24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책, 함께 읽자' 행사를 주관한 성우 양지운 씨, 연극배우 정인숙 씨,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정호승 시인, 배우 노현희 씨(왼쪽부터).

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본부장은 서정적인 시 구절을 읽으며 정 시인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과거 문학 백일장에서 고등학생으로는 정호승 시인, 중학생으로는 자신이 함께 상을 받은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문학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정 시인의 시를 읽을 때면 지금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며 위로를 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했다.

배우 노현희 씨와 연극배우 정인숙 씨는 힘들었던 속내를 허물없이 이야기하며 재소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노현희 씨는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의 한 구절을 읽어준 뒤 "배우는 겉보기만 화려하지 끊임없이 상처 연고를 덧바른다. 나는 이혼이라는 상처를 겪었는데….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해질 수 있다"며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았다.

정인숙 씨는 파킨슨병을 앓던 시어머니를 14년간 모시며 힘들었던 사연을 들려줬다. 그는 "어머니가 제 젊음을 다 훔쳐가 버린 것 같고 너무 미워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새벽부터 저를 찾고 저한테 '고마워'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자신의 상처를 말했다.



정호승 시인은 정채봉 작가에게 들은 일화를 들려주며 재소자들에게 희망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평소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으며 위안을 받았다는 한 재소자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는 글귀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책 속에서 용서, 반성, 화해의 길 찾아

정호승 시인은 특히 사람의 상처와 연민 등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재를 시로 많이 표현한지라, 참석자들은 상처와 용서, 반성 등에 얽힌 감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1979년 잡지사 <샘터>에서 근무하던 시절, 정채봉 동화작가에게서 "야, 호승아. 이제는 실 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다. 기다려"라는 말을 들은 후, 언제나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는 일화를 회상했다. "실 뭉치는 뭉쳐 있지 않으면 실 뭉치가 아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양말이나 스웨터를 짤 수 있다"며 재소자들에게도 "이제는 실 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다"고 희망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성우 양지운 씨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는 글을 인용한 뒤,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시를 소개했다. 정호승 시인은 "시가 활자로 책 속에 갇혀 있었는데, 멜로디의 옷을 입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전달되고 나면 기쁘다"며 같은 제목으로 가수 안치환이 노래를 만든 사연을 소개했다. 정 시인이 설명을 마치자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이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부르며 그동안 연습해온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다.

문학 행사의 말미는 재소자와 작가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재소자들은 그동안 읽었던 시와 산문에 대한 느낌을 직접 얘기하며 작가에게 질문을 건넸다. 평소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으며 위안을 받았다는 한 재소자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는 글귀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비만 피하다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다른 재소자도 "인생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이제는 열심히 살고 싶다"고 감상을 말했다. 재소자들의 참여 시간이 끝난 뒤 노현희 씨가 즉흥적으로 뮤지컬 <시카고>의 '올댓재즈'를 춤과 노래로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태희 교정본부장은 행사를 마치며 "어쩌면 인생은 책이다. 인생이라는 책은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구 넘겨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는 소설가 황순원 씨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운명에 이끌려가지 말고 운명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책, 함께 읽자' 행사는 유명 작가가 참여해 재소자들에게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자리다. 문학의 힘으로 재소자들의 재활을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이번 문학 행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다시 방송할 예정이다. 지난 문학 방송 역시 전국 5만여 명의 재소자들이 시청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이번 문학 낭송회는 지난 봄 서울구치소에서 첫 행사가 열린 뒤 6번째로 앞으로도 꾸준히 열릴 예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도소로, 여성 심리 및 인권과 관련한 재활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학 행사에서 노래를 부른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은 10년째 활동 중이며, 외부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교도소는 문학 낭송 행사 외에도 노래, 에어로빅, 뜨개질, 기타 강습, 한글 강습 등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재소자들의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고향의 맛' 세계 어디서나 즐기세요

세계 20개국 재외공관 협력… 우리 농식품 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배, 단감, 한과, 유자차, 복분자주….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에서 맛보기 어려운 '고향의 맛'을 선물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재외동포 7백만여 명과 해외 진출 국내기업 현지 종사자 1백65만여 명의 네트워크를 활용, 연말연시에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연말연시 해외 선물 추천 품목의 하나인 즉석 전주비빔밥.

미국 버지니아에 진출한 어느 한국 소프트웨어업체의 직원 김유한(35) 씨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지 거래처나 친지에게 건네줄 감사의 선물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김 씨에게 최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웹진에서 반가운 쪽지를 찾았다. 거기엔 과일류, 주류, 즉석 한식류 등 한국의 맛과 정을 전할 수 있는 선물용 우리 농식품 15가지 목록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었다. 김 씨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그 광고 쪽지를 보고 주문서를 작성해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로 보낼 예정이다.

이처럼 재외동포나 현지 진출 국내기업체 종사자들의 연말연시 선물 고민을 덜어주는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운동'이 그 해결책이다.

외교통상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백55개국 7백만여 명, 해외 진출 국내기업 종사자 및 거래처 종사자는 1백65만여 명. 이들에게 10가지 농식품(배, 단감, 인삼차, 홍삼액, 한과, 유자차, 김, 멸치, 장류, 복분자주)과 5가지 즉석 한식(냉동비빔밥, 냉동덮밥, 떡볶이, 삼계탕, 감자탕)을 선물용으로 추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변상문(32) 사무관은 "해외 현지 조사를 거쳐 농식품 15종의 41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배·단감 등 과일에서 즉석 한식까지 선물거리 푸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재외공관, 교민단체, 전경련, 무역협회, 코트라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등 교민이 많은 나라 20개국을 중점 추진 국가로 선정해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를 했다.

11월 27일 현재 확정된 농식품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배송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수출입 대행업체가 맡는다. 접수된 주문서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리 농식품 수출 목표액은 53억 달러. 세계 경제 위기와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 마케팅, 지자체 수출확대 독려 등 '수출 확대 100일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다.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운동도 수출 확대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 운동을 통해 연말까지 기대되는 수출액은 5천만 달러다. G

글 · 최은숙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Tel 02-500-1947 mifaf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재외동포와 해외 진출 국내기업 종사자들은 농림수산식품부나 코트라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다. 사진은 추천 품목인 전통차 세트(위)와 홍삼차(아래).

‘국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제3기 정책기자단 모집… 12월 6일까지 접수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에서 제3기 정책기자단을 모집한다.
정책기자단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2기 정책기자단의 입을 통해 알아봤다.



지난 6월 21일 열린 워크숍에서 정책기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책기자가 되면 국정원, 청와대 회의, 해상치안현장 취재 등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모든 것을 알리는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12월 6일까지 제3기 정책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정책기자단은 국민들이 직접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정책 이야기를 전달하는 국민기자단이다. 정책기자들은 정책 현장에 찾아가 효과를 살피고, 칭찬하거나 비판하고, 의견을 내놓는 일을 주로 한다.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제2기 정책기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준 기회”였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만 씨는 “한국정책방송 K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생방송에 정책기자로서 출연했던 짜릿한 시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며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상상 이상의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정책 현장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회의를 취재하기도 하고, 국가정보원을 탐방하고, 우리나라에 두 대밖에 없는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상치안 현장을 찾기도 했어요. 일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던 셈이죠.”

정책기자단의 기사는 정책기자단 블로그(reporter.korea.kr)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올라간다. 정지은 씨는 “내가 쓴 기사를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물론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진답니다. 특히 제 기사가 다음 메인에 올라갔던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메인에 올랐던 그 순간을 캡처해서 저장해두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독자한테서 ‘기사 정말 잘 봤습니다’라는 e메일을 받았을 때 그 보람과 열정은 두 배 세 배가 된답니다.”

김민지 씨는 정책기자단 활동에 대해 “다른 대외 활동 프로그램처럼 동료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 소재를 가지고 홀로 취재를 나서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활동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정책기자단 활동은 제게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떠나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만남과 인연입니다. 취재하면서 만난 장애인과 친구가 돼 함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한국 수묵화를 배우는 외국인을 취재하다 친구가 돼 지금까지 e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책 현장 취재… “상상 이상의 넓은 세상을 만나세요”

정성훈 씨는 정책기자단 기자 생활을 통해 얻게 된 정책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실 정책기자단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책은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정책과 친해졌어요. 정책에 대한 상식도 많이 쌓았고요. 알고 보니 정책이 딱딱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정책 도사’가 되어 생활에 두 배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알리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짠’ 하고 알려줄 수 있다니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요.”

이 밖에도 제2기 정책기자단 기자들은 “정책기자단 생활을 통해 글 실력과 의사전달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며 “도전해보라”고 자신 있게 추천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전하! 그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고픈데…

요즘은 잘 안 쓰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관리 용어 중 하나가 '간(諫)하다'는 말이다. 아마도 이는 상하 신분이 뚜렷한 사회에서 쓰던 말이라 오늘날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간한다는 것은 임금이나 부모님 등 윗사람이 옳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요즘 식으로 보자면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설득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모시고 있는 윗사람을 비판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간을 잘못 했다가 신세를 망친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해당될 것이다.

조선시대에 임금에 대한 간을 주 업무로 하는 사간원(司諫院)이 있었다. 책임자는 대사간(大司諫 · 정3품 당상관)이고 그 아래 사간(司諫 · 종3품), 헌납(獻納 · 정5품), 정언(正言 · 정6품)을 거느렸다. 이들이 하는 활동을 흔히 언론(言論)이라고 불렀다. 말로써 글로써 임금의 잘못을 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 간관(諫官)은 누구보다도 자주 임금에게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시로 고초를 많이 겪었다. 비교적 훌륭한 통치를 했다는 평을 듣는 성종 때의 일이다. 성종 24년(1493년) 8월 인사문제와 관련해 간관들이 성종의 처사를 간하자 화가 난 성종은 "지금의 대간(臺諫)들은 털을 불어가며 작은 흠집을 찾아내려 한다"며 대간들을 잡아들여 국문(鞠問)할 것을 명했다. 이에 8월 6일 대사간 허계(許誡)가 상소를 올려 국문 중단을 간절하게 요청한다. 그중에 이런 말이 있다.

"신하가 말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정간(正諫)이 있고 규간(規諫 · 정해진 법규에 따라 간하는 것), 풍간(諷諫), 휼간(譎諫)이 있으니 그 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모두 임금을 허물이 없는 땅에 두려는 것입니다."

간과 관련해 오간(五諫)이라는 말이 있었다. 말과 태도의 강도에 따라 간의 종류를 나눈 것이다. 첫째, 정간(正諫)이다. 곧이곧대로 간하는 것으로 직언(直言), 직간(直諫), 강간(强諫)과 통한다. 아주 아량이 넓은 임금을 제외하면 정간은 자칫 화를 부르곤 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가장 간절하기에 충간(忠諫)임이 분명하다.

둘째, 장간(戇諫)이다. 장(戇)이라는 말 뜻 그대로 우직하게 눈치 살피지 않고 간하는 것이다. 정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임금의 안색이 아무리 일그러지더라도 할 말은 하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정간에 비해 정곡(正鵠)을 찌르는 맛은 약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분노를 덜 사게 된다.

임금에게 諫하는 일… 고도의 '설득 기술' 필요해

셋째, 강간(降諫)이다. 말 그대로 자신을 최대한 낮춰 겸손한 문체나 태도로 할 말은 하는 것이다. 왕권이 강한 임금일수록 간하는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휼간(譎諫)이다. 에둘러 간하는 것이다. 고사(故事)나 시구를 인용해 은근하게 간하는 것이다. 세조 6년(1460년) 4월 26일 세조는 종친과 공신들을 경회루로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세조가 큰아버지 양녕대군에게 "저는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입니다"고 말하자 양녕은 조카임금에게 이렇게 말한다. "임금이 불교를 좋아하여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치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옛 사적(史籍)에 두루 통달하시어 고금(古今)의 성패(成敗)를 두루 훤하게 알고 계시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꾸짖는 말이었으나 세조는 이 말에 웃음으로 답했다.

다섯째, 풍간(諷諫)이다. 휼간과 비슷하면서 더욱 에둘러 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풍자나 유머를 통해 알듯 모를 듯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꼿꼿한 선비들은 풍간을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간하는 방법이라 하여 폄하했지만 실은 풍간이야말로 할 말은 하면서 일도 풀어내는 고도의 테크닉이었다. 비판의 강도로 보자면 정간, 장간, 강간, 휼간, 풍간 순이겠지만 설득의 기술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풍간, 휼간, 강간, 장간, 정간 순이 아닐까? G



일러스트 · 이우정

찬 바람이 불면~ 책 한 권으로 마음 덥히세요

날이 추워질수록 집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아진다. 이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속을 훈훈하게 덥혀줄 책 한 권을 읽어보면 어떨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12월에 읽을 만한 도서 10권을 추천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살을 에는 찬 바람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살짝 두려워진다. 그렇다고 집 안에만 있자니 답답하다. 이런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 가벼운 티타임과 더불어 책을 읽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평소 열혈 독서가로 소문난 소설가 신경숙, 연세대 철학과 김형철 교수 등 10명에게서 12월에 읽으면 좋을 책을 추천받아 10권을 선정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책은 그림책 평론가 서정숙과 아동문학가 이금이가 추천한 시린 호마이어의 〈엄마의 슬픈 날〉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어린 소녀 모나는 '엄마의 슬픈 날'이 두렵고 싫다. 제때 밥 먹기가 힘들고, 집 안 청소를 해야 하고, 학교에 지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문제지만 모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자책감이나 두려움이다.

궁궐 전각 약탈의 역사 〈궁궐의 눈물…〉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용기를 내 주위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 서적은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의 속편 격인 〈유쾌한 경제학〉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경제학 개념들 중에는 경제학 원론 정도는 배워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례 중심으로 친절히 설명해놓았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초보 입문자라면 흥미를 갖고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마음에 드는 관광 명소를 물으면 늘 꼽히는 곳이 고궁이다. 이런 궁궐에 관련된 안타까운 역사를 우동선 외 8명의 건축사들이 소개한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을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추천했다. 이 책은 수많았던 궁궐 전각들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는 1백 년 동안 어디로 사라져갔는지를 추적해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을 그린다. 경복궁에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는 등 일제 식민 지배 이념에 따라 곳곳에 궁궐 대신 건축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여러 논리로 새로운 건축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앞으로 그 궁궐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필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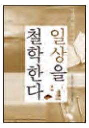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사과는 잘해요
장르 문학 | **저/역자** 이기호 | **출판사** 현대문학
책 내용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사회를 향한 작가의 재기발랄하고 비통한 풍자적 발언을 담은 소설 | **추천자** 신경숙(소설가)



이젠하임 가는 길
장르 예술 | **저/역자** 정준호 | **출판사** 삼우반
책 내용 음악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음악에 대해 쉽게 설명해 일반인들이 읽으면 좋은 책 | **추천자**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일상을 철학한다
장르 철학 | **저/역자** 오모리 쇼조/ 이경덕 | **출판사** 가인비엘
책 내용 일상적인 삶 속에 숨어 있는 철학코드를 소개한 책
추천자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
장르 역사 | **저/역자** 우동선 외 | **출판사** 효형출판
책 내용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궁궐 전각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적이 돋보이는 역사서 | **추천자**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세상을 망친 10권의 책
장르 교양 | **저/역자** 벤저민 와이커/ 김근용 | **출판사** 눈과마음
책 내용 고전의 이면을 가차 없이 드러낸 신선한 시도가 돋보이는 책
추천자 이한우(조선일보 출판팀장)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장르 정치·사회 | **저자** 이성형 | **출판사** 그린비
책 내용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겪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험을 잘 분석한 책 | **추천자**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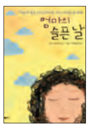
토드 부크홀츠의 유쾌한 경제학
장르 경제·경영 | **저/역자** 토드 부크홀츠/ 이성훈 | **출판사** 삼우반
책 내용 실생활의 예를 적절히 활용해 경제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란 것을 알려준 경제서 | **추천자**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왜 인간인가?
장르 자연과학 | **저/역자** 마이클 가자니가/박인균 | **출판사** 추수밭
책 내용 '인간의 고유성 뒤에 숨은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한 방법으로 설명한 과학서 | **추천자**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장르 실용 | **저/역자** 고다마 사에/ 박소영 | **출판사** 책공장더불어
책 내용 일본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순례하며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고발하는 책 | **추천자**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엄마의 슬픈 날
장르 아동 | **저/역자** 시린 호마이어/ 이유림 | **출판사** 문학동네
책 내용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책
추천자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하이힐 오브제로 엿보는 인간 현실

김정범 '현실의 시선들' 전

일시	12월 4일(금)~31일(목)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 종로구 궁정동 가진화랑
관람료	무료
문의	02-738-3583

도자(陶瓷) 오브제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는 작가 김정범(47) 씨가 12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가진화랑에서 '현실의 시선들'이라는 전시회를 연다. '하이힐의 작가'로도 불리는 김 씨는 도자로 빚어 구워내 신고 다닐 수도 없는 수많은 하이힐 오브제를 통해 도시 속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풍경처럼 그려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란 풍경화라는 의미를 지닌 대작 'Yellow Landscape'를 포함해 크고 작은 오브제 20여 점을 선보인다. 가로 길이가 약 3미터에 이르는 'Yellow Landscape'는 노란 하이힐 밑바닥에 자석을 붙여 대형 철판에 붙였다 떼어내기를 자유롭게 할 때마다 작품 전체의 형상이 달라지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2년 전부터 도자로 빚은 신발을 소재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온 김 씨는 "신발만큼 대중적이고 인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며 "신발은 인간의 삶과 함께 공존해온 친숙한 소재다. 신발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주인의 성격과 취향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하이힐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다워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신발을 쪼개고 붙이고 재배열하다 보면 도자 본연의 색과는 다른 신비로운 색채를 뿜어낸다. 신발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풍경을 통해 인간의 면면도 엿볼 수 있다. 관객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런 재미를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홍익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한 후 국내외 개인전과 그룹전에 다수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3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그랑프리국제미술전과 같은 해 앙크르에서 개최된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가의 오브제 작품은 현재 아치브레이재단(미국), 서머힐 갤러리(미국), 가진화랑(서울), 클레이아크미술관(김해), 서라벌C&C(경주) 등에 소장돼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뮤지컬 '쿼즈쇼'

일시	12월 6일(일)~2010년 1월 2일(토) 평일 오후 8시, 토 · 일요일 오후 3시, 7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의	02-577-1987 www.sac.or.kr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초상을 리얼하게 그린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의 동명 장편소설이 원작이다. 뮤지컬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힘겹고 복잡한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 이민수의 모험을 통해 복잡다단하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 사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이 시대 젊은이의 표본인 주인공 이민수 역은 뮤지컬 '주유소 습격사건'의 히어로인 이율이 맡았다.

'일본 근대 서양화' 전

일시	2010년 3월 21일(일)까지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후 9시까지, 일·공휴일 오후 7시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일본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00 www.museum.go.kr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 근대 서양화 전체를 전격 공개한 전시다. 인물화와 풍경화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33점, 드로잉 2점, 판화 4점, 파스텔 1점을 선보인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서양화는 일본에서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명품들이다. 특히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돼 있어 한국 근대 미술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기부센터
(www.give.go.kr)

휴대폰 윙크시스템
숫자 539 (오선~거) +
통신3사 인터넷 접속키
NATE SHOW OZ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신한, 비씨, 국민, 외환 등
4개사 가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종 플루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1분에 8개, 1시간에 469개, 하루 11,267개의 혈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혈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헌혈! 헌혈은 생명을 보듬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적십자사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